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2019
10
4 9 6

<http://afzine.co.kr>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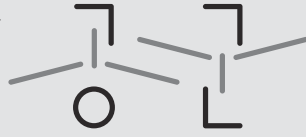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대한민국 공군이 태어난 1949년 10월 1일,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동안 공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영광을 수호해왔으며, 그 속에는 웃음과 눈물, 희생과 헌신, 도전과 열정이 숨 쉬고 있습니다. 공군은 그 소중한 시간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멋진 그림과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공군의 70년을 한 폭에 담은 라이브 드로잉, KBS에서 제작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월간 『공군』이 기록했습니다.





중국 시안의 '역사전통문화거리' 풍경.
10월 1일 22시에 방송되는 KBS 공군 창군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충첩(忠戢)》의 촬영지 중 한 곳이다.(관련기사 : 10~17쪽)



05	화풍지설	시절인연
06	기획특집	그림으로 만나는 공군의 70년
10		공군 창군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충천(冲天)>에 담긴 역사 이야기
18		충칭, 임시정부의 마지막 흔적을 찾다
22		2019 ADEX/사천에어쇼 전격 해부
26	르포르타주	제18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
32	내 옆의 공군인	공군사관학교 교수 강창부 중령
36	그날, 우리 하늘	숨겨진 항공기헌납운동
38	우리 부대는	제11전투비행단
40	공군소담	호루라기

44	지금 이 순간!	참모총장 동정 & 공군 소식
48	공군인의 편지	김정래 병장 등 3명
50	책 읽는 공군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 & 『사람, 장소, 환대』

52	우주의 이해	우주인의 우주공간 삼시세끼
54	생활 타이포그래피	하기 쉬운 실수_인쇄편
56	공군인의 마음 건강	성격
58	첫 독자의 편집후기	『공부머리 독서법』
60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윈스턴 처칠의 용기
62	생각하는 그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64	기준의 기준	휴가를 '나가지 않을 수 있다면'



표지(앞) 창군70주년 기념 라이브 드로잉 (김정기 작가 / 관련기사 6쪽)
재편집 하사 홍인선, 상병 공현민
표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행일자 2019년 10월 1일(통권 제496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원인철
편집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강성구
편집감수 중령 정기완
기획·편집 대위 이요셉, 8급 김모아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9090382)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절인연

시절인연은 불교에서 관용어처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의 발생은 특정한 시기가 되어야 일어난다는 뜻으로 인과보응(因果報應)설에 기반해 있습니다. 인과보응설은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며 그 결과 역시 또 다른 원인이 되어 새로운 결과를 견인하면서 세상과 우주를 굴러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하늘에서 첫 비행이 이루어진 때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913년입니다. 일본 해군 중위 나라하라 산지가 설계한 오토리호가 용산연병장에서 첫 비행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6만의 인과가 운집해서 구경을 했다고 하는데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한 것이 이보다 10년 전인 1903년이었으니까 비교적 빠르게 비행기가 조선에 소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17년에도 조선에서 또 한 번의 항공 이벤트가 열리게 되는데 미국의 곡예 비행사 아트 스미스가 서울과 평양 등에서 커티스 비행기로 관중의 눈을 속 빼놓을 만큼 현란한 비행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우리 공군 창군의 핵심인물들인 김정렬, 이근석, 박범집이 서울, 평양, 함흥 지역에서 각각 태어납니다.

이분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식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청소년기에 민족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아실현이나 입신양명을 위해 일본육사나 소년비행학교에 진학하여 비행을 배웠다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들이 식민지 교육을 받았을리 없고 민족의식이 희박해질 이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조종사가 되어 출세를 꿈꾸던 그 소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려들어 갔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군이나 연합군과 싸웠을 것입니다.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해방은 많은 상황을 바뀌게 해주었습니다. 일본군에서 항공분야에 복무하며 일제체제를 위해 싸웠던 이들은 한순간에 그들의 계급을 박탈당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가정한다면 일본군 간부(장교, 부사관)로 복무했던 이들의 상당수는 계속해서 일본군 내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며 자신들의 인생을 완성해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그들이 일본군 신분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부대를 떠나 독립군이나 광복군에 투신

했을 확률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들의 시절인연은 식민지 조선이 독립하는 쪽이 아닌 유지하는 쪽에 있도록 펼쳐졌습니다. 밀정처럼 독립운동가들을 직접 잡으러 다니고 고문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해도 어찌되었건 일본군의 장교나 간부로 복무한다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시키고 강성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때 나는 어렸었고 사리분별이 정확하지 못한 시절의 결정이었다고 해명을 하더라도 일본을 위한 충성의 길에 앞장섰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군 출신 선배들이 해방 후 우리 군의 창군 과정에 큰 기여를 했고 6.25전쟁 기간 목숨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군의 발전에 기여했던 공은 필설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해석에 따라 일본의 현대식 엘리트 군사교육을 받은 그들의 식견과 지략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운명이나 시절인연을 측은하게 여기며 창군 이후 우리 공군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주춧돌이 되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공군의 아버지 반열로 받들며 추앙하는 자리에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서는 일본군에 함께 복무했고 지금 생존해 계신 초창기 공군 선배님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자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다양한 출신성분의 모든 항공인들을 규합하여 독립한 조국의 공군을 만드는 데 헌신하며 무명의 초석이 되고자 하셨던 ‘영원한 광복군 최용덕 장군’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를 권합니다. 올해는 그 분이 돌아가신 지 5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그분이 지으신 ‘공군의 결의’는 여전히 우리들 가슴 속에 북극성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대한민국 공군이 영원히 간직해야 할 선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AF

공보정훈실장 대령

강성구



그림으로 만나는 공군의 70년

김정기 작가 라이브 드로잉 **공군 창군 70년, 나아갈 100년**



이번 호 표지를 보고 ‘우와!’, ‘이건 누가 그린 거지?’, ‘이 부분은 뭘 표현한 거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답이 여기 있다. 표지의 그림은 ‘라이브 드로잉¹⁾’ 아티스트 김정기 작가가 그려낸 <공군 창군 70년, 나아갈 100년!>이다. 놀랍게도 이 그림은 하얀 도화지 위에 숫자 ‘70’ 외에 아무런 스케치도 하지 않고 오로지 붓펜으로만 그린 것이며, 공군 에어쇼기획실이 서울 ADEX 2019에서 공군의 70년 발자취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한 결과물이다. 월간 『공군』 편집실은 독자들과 이 감동을 나누기 위해 그림에 대한 자세한 기획의도와 세부설명, 작가 인터뷰를 준비했다.

에어쇼기획실의 기획의도

공군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일궈낸 ‘기적’ 그 이상의 역사였습니다. 임시정부의 항공독립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극적이고 감동적인 창군 과정, 창군 8개월 만에 맞은 6·25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조국 하늘을 지켜낸 출격 조종사의 활약 등이 있었습니다. 공군의 당당한 발자취에는 조국의 하늘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신념과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흔적을 서울 ADEX 2019에서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920년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1950년 국민의 성금으로 구입한 10대의 T-6 항공기, 6·25 전쟁과 대한민국 수호의 일등 공신 F-51 전투기 등 항공독립운동과 공군 창군, 이후 6·25전쟁 시기 그리고 현재까지, 공군 역사의 ‘과정’이 주는 가치에 주목합니다. 김정기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은 ‘과정이 지닌 가치’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 라이브 드로잉 : 밑그림 없이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 작품을 완성하는 것. 김정기 작가는 이 분야에서 매우 세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작품의 주요 테마

<공군 창군 70년, 나아갈 100년!>에는 대한민국공군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다.

작품의 테마는 **1. 공군의 태동 2. 창군을 위한 노력 3. 6·25전쟁과 공군 4. 공군의 도약 5. 공군의 발전 6. 공군의 오늘과 미래 7.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세계 속의 공군**으로 총 7개이다.

여기에는 그중 5개 테마에 대한 세부설명을 준비했다. 월로우스 비행학교의 모습을 담은 '공군의 태동', 블랙이글스와 다이만 부대의 모습을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세계 속의 공군'을 원본 그림에서 직접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그림의 실물은 2019 ADEX 행사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관련영상과 월페이퍼는 대한민국공군 SNS(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군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 공군의 정신적 지주 최용덕 장군(왼쪽 첫 번째)과 김정렬, 장덕창, 이영무, 박범집, 김영환, 이근석 장군(왼쪽 두 번째부터 순서대로)의 모습, 7인이 한자리에 모여 항공기 도입과 병력 총원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은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장면이다.



6·25전쟁과 공군

1950년 여의도 기지에서 개최된 T-6 건국기 명명식의 모습, 국민들이 건국기 명명식에 참석한 조종사를 응원하고 있다. '건국기'라는 이름에는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킨다.'는 국민과 공군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그 아래로 보이는 모습은 6·25전쟁 개전 초기 맨손으로 폭탄을 던지며 사투를 벌였던 우리 공군의 모습이다.



공군의 도약과 공군의 발전

공군이 만든 최초의 국산 경비행기 부활호와 제트 전투기 시대를 연 F-86F 세이버의 모습. 그 오른쪽으로는 1982년 자주적인 항공전력 증강과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Northrop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KF-5E/F 전투기를 운용하는 모습과 1995년 KF-16C 1호기를 운용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공군의 다양한 전력과 임무요원들의 모습도 담았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C-130과 공정통제사, 방공무기체계 등이 보인다.



공군의 오늘과 미래

엔진과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 정비사의 모습이 보인다. 그 위로는 공군의 신규도입 전력과 도입예정 전력들이 보인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과 임무요원들, 하늘의 주유소 KC-330 시그너스, 전략표적 타격의 핵심전력 F-35A 전투기, 향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전력과 예정인 KF-X 한국형 전투기 등을 표현했다. 동시에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도 그려냈다.



김정기 작가 인터뷰

김정기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은 공군사관학교에서 8월 28일 (수)부터 29일(목)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작업을 모두 마친 김정기 작가를 만나 궁금한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AF : 작가님, 안녕하세요. 우선 월간 『공군』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기 작가 : 안녕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라이브 드로잉을 하면서 '라이브 드로잉 아티스트'로 알려졌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만화가 꿈이었고, 만화로 시작한 뿔속까지 만화가 김정기입니다. 그림을 재미있게 그리는 사람, 어릴 때 낙서하듯이 자유롭게 편하게 그리는 사람으로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가이고 싶습니다.

AF : 이틀에 걸쳐 그림을 그리셨는데 완성하신 소감은?

김정기 작가 : 저는 예전부터 공군, 항공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군 제의를 받았을 때 너무 재미있는 일 같아서 선뜻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70주년 그림 작업을 하기 전에 비행단도 두 군데 가보고, 공군 박물관도 가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군에 7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렵게 창군되었

고, 희생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 국민으로서 알고 있던 공군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어 공군이 더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AF : 작업을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많으시군요?

김정기 작가 : 네, 항공기나 파일럿 이런 것에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기종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까이 보고 타보고 정비하는 것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아, 이런 구조로 움직이고 항공기 하나가 뜨는구나. 항공기가 뜨기 위해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줘야 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AF : 공군 역사를 배우시는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이 있다면?

김정기 작가 : 건국 이전부터 공군 창설을 위해 발 빠르게 애쓰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모여서 공군의 필요성을 미리 알고 공군이 꼭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준비하셨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시대에도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구나 생각했고, 우리가 참 가난한 나라였는데 파일럿을 양성하고 우리 기술로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까지 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AF : 이번 작업에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김정기 작가 : 공군의 70주년을 담아야 하는데,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화지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큰 사건들, 큰 획을 그은 큰 흐름의 사건들 그래서 창군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건국기도 사고, 또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고 차츰차츰 발전해가는 모습들, 시대적인 것들, 중요 인물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항공기도 그려야 하지만 너무 항공기만 나오는 것은 재미가 없을 거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일럿이 있으면 그 주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도와줘서 기체가 날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AF : 붓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린 것을 무를 수도 없는 데요. 실수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김정기 작가 : 지금까지 라이브 드로잉을 하면서 실수를 안 한 적은 없어요. 매번 실수를 하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것, 그걸 다르게 변형시켜서 무마하는 그런 과정도 재미있거든요. 요번 작품에서도 실수를 좋게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AF : 작가님은 라이브 드로잉의 대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김정기 작가 :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랑 공 차는 거. 저희 집에 그림 그리는 사람, 예체능 쪽이 없는데 제가 왜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을 그리면 친구들이 잘 그린다고 칭찬해줬어요. 실제로도 또래들보다 잘 그렸는데 주변의 칭찬 때문에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칭찬의 힘으로, 제가 좋아하니까 재미가 더해지면서 가속도가 붙었던 거 같아요. 지금도 제가 가장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건 유명해지고 돈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재미가 유지되는 거예요. 어릴 때 방에서 배 깔고 누워서 아무 생각 없



이 그릴 때의 그 기분. 그 기분을 유지하려고 해요.

AF : 공군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어떠셨나요?

김정기 작가 : 공군이라고 하면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였어요. 남자들은 파일럿이라는 게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멋지다. 딱 그 정도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우리 공군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만든 항공기를 타고, 우주 사업까지 준비하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공군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걸 알았고, 블랙이글스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친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공군이 가깝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F : 그럼 80주년에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공군과 더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김정기 작가 : 원래는 이번에도 ADEX 행사장에서 라이브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아쉬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행사장에서 라이브로 그림을 그려서 국내외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는 찍을 수 없는 그런 공군의 모습들, 새로운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길 기회 같은 것이 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걸로 달력도 만들 수 있고, 여러모로 공군과 함께할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AF : 다음 기회에 월간 『공군』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



공군 창군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충천(沖天)>에 담긴 역사 이야기

이 글의 상당 내용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향후 상술한 별도의 저작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을 별도 출처 없이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며, 활용 시 반드시 필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프롤로그

2019년 10월 1일, 창군 70주년을 맞이하는 공군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공군은 창군의 주역인 최용덕(崔用德)에 주목하고 있다. 최용덕은 식민지 시절, 중국으로 넘어가 독립운동에 투신했으며, 특히 항공계에서 활약해 중국 공군 창설에도 기여했다. 그는 광복군 합류 후에도 공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고, 해방 후 한국에서도 항공계 통합단체인 한국항공건설협회의 회장으로서 공군 창군 노력을 이어갔다. 최용덕이 초대 공군 참모총장이 되어야 했으나 국방부차관으로 영전해서 말지 못했다는 김정렬(金貞烈)의 증언대로, 그는 '7인의 간부' 가운데 리더로서 공군 창군을 위한 모임을 이끌었다.

한국방송(KBS)은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이해 최용덕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충천(沖天)>을 제작했다. 대중뿐만 아니라 공군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최용덕의 삶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필자는 강창부 교수와 함께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 지원에 나섰다. KBS 제작진은 열정적이었다. 덕분에 심야의 자문 요청에 수시로 답하고, 중국 현지까지 동행하는 고생을 감내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런 고생은 열정적인 제작진에 대한 기대 덕분에 유쾌하기도 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최용덕을 60분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자세히 그려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최용덕의 행적을 보완하고자 한다. 다큐멘터리와 함께 이 글이 최용덕의 헌신적인 삶을 알리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 공군 창군 70주년 다큐멘터리는 KBS 1TV에서 10월 1일 방영된다.



1. 서왈보(徐曰甫)와 함께 했던 독립운동

서왈보는 베이징의 난위안(南苑)항공학교를 졸업한, 중국 방면에서 처음으로 조종 자격을 획득한 한국인이다. 그는 한국에 있어 항공력이 효율적인 무력수단이라 생각했고, 항공력을 독립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최용덕 등을 조종사로 거듭나도록 이끌었다.

일각에서는 서왈보와 최용덕의 만남이 최용덕의 항공학교 입교 즈음에 이뤄졌던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서왈보는 자신이 항공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최용덕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1919년 서왈보는 베이징 일대의 한국인 청년들을 규합해 대한독립청년단을 결성하면서 최용덕의 집을 아지트로 삼았다. 서왈보와 최용덕의 항공학교 입교는 각각 1920년과 1924년이다.

서왈보는 기본적으로 무장독립운동의 입장에 있었고, 최용덕 역시 이에 동조했다. 1921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투쟁 노선을 둘러싼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서왈보와 최용덕은 의열단(義烈團)에 가담했다. 미국이나 중국 등과 연대해 독립전쟁을 전개하겠다는 독립전쟁론이 좌절된 상황에서 의열투쟁은 현실적인 무장독립운동이었다. 그렇지만 서왈보와 최용덕은 의열단이 임시정부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공산주의의 성향을 띤다고 판단해 이내 의열단에서 나와 신의단(申義團)을 조직했다. 이후 최용덕은 의열단의 김원봉(金元鳳)과 거리를 두게 된다. 최용덕은 독립전쟁을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왈보의 독려로 바오딩항공학교에 들어가 항공력을 활용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항공인으로서의 그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다.

대한독립청년단이 있었던 골목





나의 운동 목표
 (서안보중국방명서에서)
 한층 청년도 행복을 얻도록 해야겠다
 무적 돈으로 설계 제작한 항공기가
 무적 공역에서 날아야겠다
 인류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위
 하여 다른 나라 공역에서도 날아야
 겠다
 인류문화의 발전을 대략 모두
 가 항공생활을 해야겠다
 최용덕

直派에加擔出戰하였는
朝鮮飛行家崔氏戰死
 그는청광년전북경비행학교를졸업한
金元鳳部下義烈團員
 ◇靑島에서 本社特派員趙東祐特電
 지금으로부터 열팔년전에 중국(中國)에서 북경비행학교(北
 京飛行學校)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지고 일시는 북경의
 열단원(義烈團員)으로 활동하는 조선비행가 최용덕(朝鮮
 飛行家崔容德)(二六)씨는 직례파(直隸派)에 가담하여 가지
 고싸우든바 지난오륙일경에 산해관(山海關)에서 전사하였
 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그는 서울(京城)출생이라더라

2. 1924년 제2차 펑즈전쟁(奉直戰爭)

허베이(河北)의 바오딩(保定)에 있었던 바오딩항공학교는
 즈리(直隸) 군벌이 항공력 증강을 위해 난위안항공학교
 를 기반으로 증설한 조종사 양성소였다. 최창석(崔滄石)
 이란 중국식 이름을 썼던 최용덕은 이곳에서 조종사로 거
 듭나고 있었다. 조종사가 되기 전 마지막 단계인 단독비
 행을 앞둔 1924년, 즈리 군벌은 현재의 만주 지역을 기반
 으로 한 펑톈(奉天) 군벌과 충돌했다. 제2차 펑즈전쟁이라
 부르는 이 전쟁에 최용덕은 '비행조수'란 역할로 참전했다.
 제1차 펑즈전쟁의 참패를 교훈으로 대대적인 군 근대화
 를 단행했던 펑톈군은 압도적인 항공전력을 동원해 즈리
 군의 항공대를 격파했다. 최용덕은 전선에 임시로 만든
 비행장에서 동료들의 패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즈리
 군은 일방적으로 밀렸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가 전사했
 다는 소문도 돌았다. 즈리군은 퇴각을 결정했다. 최용덕
 은 우마차 등에 남은 비행기를 실어 눈물어린 퇴각 작전
 을 수행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용덕은 이때의 참패를 목도하면서 항

공력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조종사 자
 격을 획득한 뒤, 즈리군의 새로운 수장인 우페이부(吳佩
 孚)의 바오딩항공대에서 성심껏 복무하면서 경험을 축적
 했다. 1926년 시안 전투 참전은 이 과정에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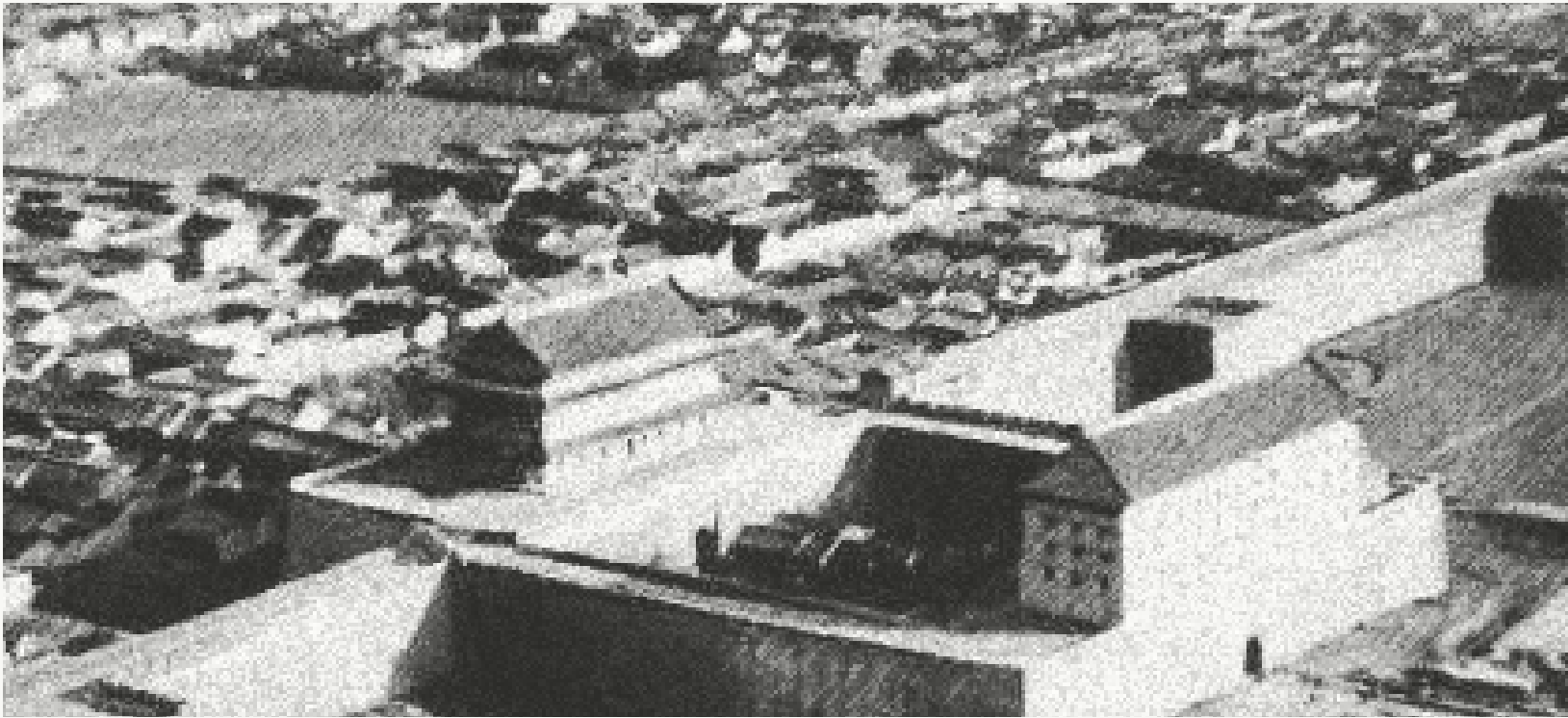
3. 1926년 시안(西安)

시안은 장안(長安)이라고 불렸던 고도(古都)이다. 중국
 고사에 '관중을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得關中者, 得天
 下)'라는 말이 있는데, 관중의 중심이 바로 시안이었다.
 시안은 역사적 명성에 걸맞게 웅장한 성벽을 갖추었고,
 현재도 시안을 찾으면 중심부를 둘러싼 성벽의 위용을 볼
 수 있다.

군벌 사이의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1926년, 즈리 군벌
 의 일파였던 류전화(劉鎮華)는 국민군의 견제와 세력 확
 장을 위해 시안성을 공격했다. 시안의 방어병력보다 우세
 했던 류전화의 군대는 곧바로 시안성을 포위했다. 그렇지
 만 류전화의 군대는 시안의 높은 성벽을 넘지 못하고 있
 었다. 류전화는 즈리 군벌의 수장이었던 우페이부에게 항

- ①
- ②
- ③
- ④

① 최용덕을 항공계로 이끌었던 서할보
 ② 최용덕이 밝힌 중국에서의 활동 목표
 ③ 최용덕이 전사했다는 오보(1924. 11. 16.)
 ④ 시안성의 모습(1933년)



공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류전화는 자신의 부하들을 지리 군벌의 항공학교인 바오딩항공학교에 보내기도 할 정도로 항공력에 관심을 보였다. 바오딩에서는 즉각 지원 병력의 파견을 결정했다. 그 가운데는 최용덕도 있었다.

바오딩에서 시안은 매우 먼 거리였다. 당시 기술로는 항공기를 분해해 이동한 뒤, 현장에서 다시 조립해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최용덕은 동료와 함께 수로를 통해 항공기를 옮기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최용덕은 토비(土匪)라고도 했던, 산적과도 유사한 무리를 만나 고초를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안에 도착한 최용덕 등은 가져온 Avro 504K와 Vickers Vimy 등의 기종을 활용해 시안성을 폭격하거나 전단지를 살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런 임무는 비행기를 활용해 높은 성벽을 넘어서 방어병력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였다. 비행은 Avro 504K의 내구성이 바닥날 정도로 잦았다.

시안의 방어병력은 극한의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도 수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공성은 겨울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평위상(馮玉祥)의 국민군은 시안의 방어병력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시안을 포위하고 있었던 류전화는 급변한 전세에 따라 서둘러 후퇴했다. 최용덕은 동료 리텐민(李天民)과 함께 시야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비행을 감행해 퇴각했다. 당시 그 항공기에는 야간비행을 위한 계기 장치조차 없었다. 최용덕과 리텐민은 소중한 항공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비행에 나섰던 것이다. 다행히 이들은 야간비행에 성공해 안전하게 복귀했다. 그렇지만 이들이 목숨 걸고 복귀한 류전화 군의 진영은 사실상 와해된 형국이었다. 류전화 군은 인근의 토비조차 막아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최용덕과 리텐민이 가져온 비행기를 강탈당했다.

최용덕은 바오딩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지리 군벌은 중국 통일을 내세운 장제스의 북벌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만주의 평텐 군벌까지 지리 군벌에 공세를 가했다. 1926년에서 1927년으로 넘어가는 시간동안 최용덕은 너무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4. 장제스(蔣介石)의 국민정부군에 합류한 최용덕

1920년대 중반 중국에서 조종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최용덕은 조종사로서 참전 경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귀한 자원이었다. 북벌에 나섰던 장제스는 최용덕을 포함한 쓰리 군벌의 조종사를 포섭하고자 했다. 윈난(雲南)항공학교의 교장이었던 류페이첸(劉沛泉)과 장제스의 국민정부군에서 활동했던 김홍일(金弘一)은 최용덕 등을 만나 북벌에 가담할 것을 권유했다. 참고로 류페이첸은 권기옥(權基玉)의 윈난항공학교 입교에도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고, 김홍일은 '오성장군'이라 불리면서 국군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최용덕은 장제스의 휘하에 들어갔다. 이 결정은 단지 돌아갈 곳이 없어서만은 아니었다. 그는 중국이 통일되어야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장제스의 북벌은 중국 통일을 기대하게 했다. 최용덕은 장제스의 국민정부에 합류한 뒤, 주요 전투에 참여하면서 국민정부의 공고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활동은 최용덕에게 조종사로서의 경험 축적과 함께 장제스의 신임을 안겨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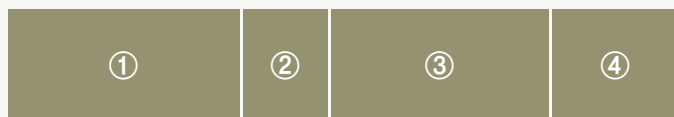
5. 1932년 상하이(上海) 사변, 성사되지 못한 일본 군과의 첫 교전 기회

1931년 만주사변을 도발해 괴뢰국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이듬해 상하이에 대한 공략에 나섰다. 일본군은 지상병력 뿐만 아니라 수십 대의 항공전력까지 동원했다. 중국의 국민정부는 일본군에 맞서기 위해 3만 명 이상의 육군을 배치하면서 비행대를 지원했다. 상하이 전역에 투입된 비행대에는 최용덕도 있었다. 최용덕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몰고 일본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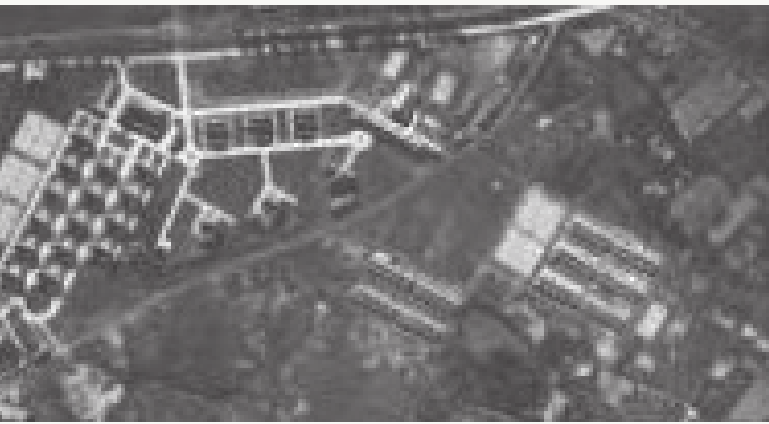
전세는 중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상하이의 주요 지점을 점령하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 온 일본군은 최용덕이 있었던 왕자둔(王家墩) 비행장에 포를 겨냥했다. 만약 비행기의 이륙을 시도할 경우 곧바로 포격을 가하겠다는 협박이었다. 비행장에 주둔한 중국 국민정부군은 일본군을 눈앞에 두고서도 싸울 수가 없었다. 눈앞의 일본군과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용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바오딩항공학교 동기로 1926년 시안 전투에서 최용덕과 '난형난제(難兄難弟)'로 불렸던 리텐민은 이때의 최용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우리들은 윤번으로 비행기 근처에서 경비를 섰다. 최용덕은 밤낮없이 비행장을 지키고 있었다. ... 우리 비행기가 탄약을 싣고 이륙한다면 일본 조계지의 대포가 가장 먼저 포를 쏠 것이다. ... 며칠 동안의 극도의 경계 속에서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고도 손을 쓰지 못하자 못내 아쉬워했다. 최용덕은 그 사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고, 목소리도 잠겨있었다. 입가에는 물집이 몇 개 생겼다.

2월말, 최용덕은 국민정부의 수도인 난징 방어를 위해 인근의 항저우(杭州)로 이동 배치 되었다. 26일, 항저우 상공에서는 양측의 격렬한 공중전이 전개되었고, 이륙했던 동료들은 일본군의 공격에 격추당했다. 그 가운데는 바오딩항공학교 동기이자 최용덕에게 자신의 처제인 호용국(胡用國)을 중매했던 스방관(石邦藩)도 있었다.



- ① 최용덕이 국민정부에 합류한 뒤, 항공열 고취를 위한 선전비행에서 조종했던 한커우호
- ② 중앙항공학교 교관 시절의 최용덕
- ③ 항저우(杭州)의 중앙항공학교
- ④ 전쟁 중 국민정부의 육군대학이 있었던 충칭 산동(山洞)의 옛모습
※ 육군대학터는 현재 중국 군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접근이 어렵다.



6. 중국 공군의 독립, 그리고 최용덕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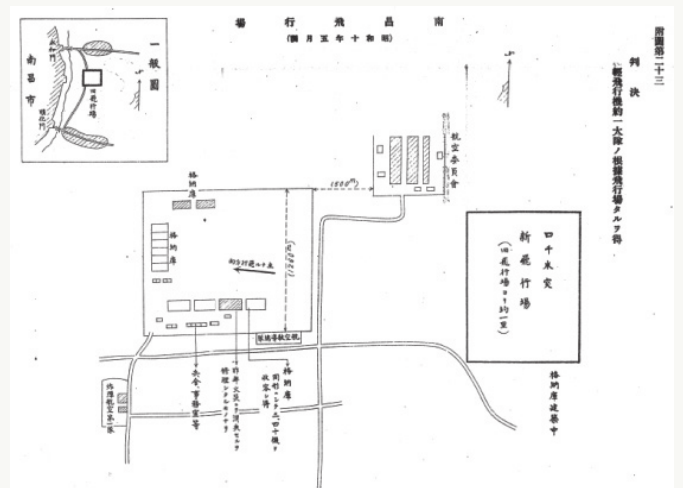
장제스는 북벌 당시부터 항공력의 증강을 추진했다. 그는 1932년 상하이 사변에서의 패전을 경험하면서 쑨원(孫文)이 주창했던 ‘항공력이 나라를 구한다(航空救國)’의 가치를 다시 내세웠다. 장제스는 항공병과를 육군으로부터 독립시켜 ‘공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공군의 총사령부 역할을 했던 ‘항공위원회’의 위원장에 올랐다.

장제스는 공군의 빠른 발전을 위해 미국 항공대 출신의 쥘렛(John H. Jouett)을 고문으로 초빙했다. 쥘렛은 중국 조종사들의 기량을 재점검한 뒤, 실력을 인정한 10여 명을 국민정부의 공군사관학교라 할 수 있는 중앙항공학교의 교관으로 임명해 미국 랜돌프(Randolph)¹⁾의 교육에 입각한 조종사 양성에 가담하도록 했다. 1930년대 전반 중앙항공학교의 교관진은 중국 내 최고 기량의 조종사들이었던 셈이다. 각지에서 선발된 교관 중에는 최용덕도 있었다.

최용덕은 단순히 조종기술로만 실력을 인정받지 않았다. 새롭게 만들어진 중국 공군은 전술과 교리 등도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중국 공군은 한커우(漢口)에서 공지작전을 담당할 육공연락반(陸空連絡班)을 창설했다. 최용덕은 육공연락반의 기획과 실습 등 제반 사항을 만들었다. 그는 중국 공군에서 인정받는 조종사일 뿐만 아니라 공군의 독립성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인물이었다.

1935년 최용덕은 난창(南昌)에 새로 만들어진 비행기지의 사령관(總站長)으로 임명되었다. 난창은 항공위원회가 있었던 중국 공군의 창설지로서 당시 수도 난징(南京)과 함께 제1급 비행기지로 지정되었던 곳이다. 난창 기지 사령관의 역할은 최용덕의 능력과 중국 공군의 신임을 엿볼 수 있는 인사기록이라 할 수 있다.

중일전쟁 발발 후 최용덕은 중국의 육군대학에 들어갔다. 당시 육군대학은 육군 참모대학을 넘어서 국방과 관련한 전반을 교육하는 고급장교 양성기관으로서 장성급 인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교육과정이었다. 전쟁 중 국민정부는 육군대학에 특별반을 설치해 상교(대령) 이상 장교 가운데 우수한 자원을 뽑아서 교육했다. 중국군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한국인들 중 육군대학을 이수한 사람은 최용덕과 김홍일, 박시창(朴始昌), 이렇게 3명뿐이다. 최용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육군대학에 들어갔다. 훗날 김정렬은 최용덕이 육군대학을 나왔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다.



난창의 두 비행기지에 관한 일본군 첩보자료
(출처 : 일본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 랜돌프 기지는 1931년 비행교육을 본격 개시한 美 육군 항공대의 최신 교육훈련 기지였으며, 현재까지도 미국 공군의 핵심 교육훈련 기지로 자리하고 있다. 참고로 김신(金信)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랜돌프에서 비행훈련을 수료했다.

8. 공군을 만들려는 최용덕의 노력과 헌신

1943년 7월 광복군에 대한 중국군의 대대적 검열을 성공리에 마친 최용덕은 총무처장에서 고급참모로 보직을 이동했다. 그리고 그는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에 ‘공군건설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임시정부는 최용덕의 건의에 따라 ‘공군설계위원회’를 두면서 최용덕에게 실무의 전반을 맡겼다. ‘공군설계위원회’는 항공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었다. 이후 광복군은 최용덕을 중심으로 항공력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최용덕은 종전 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공군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국내의 항공계를 통합한 ‘한국항공건설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국내 언론은 그를 ‘항공총장’으로 상찬하면서 그의 귀국이 혼란스러웠던 항공계의 통합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미군정은 치안 기능 위주의 한국군 건군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의 공군 창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최용덕 등은 미군정과 교섭하면서 대전항공학교 설립 등 공군을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매진했다. 미군정은 1948년 초에 이르러서야 연락부대 수준의 비행부대 설치를 승인했다. 그리고 미군정은 최용덕과 이영무(李英茂), 김정렬 등 공군 창군을 주도했던 7명에게 병사 훈련부터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다. 장교 출신인 이영무와 김정렬 등은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장성급 장교 출신인 최용덕은 공군 창군이란 대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감내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의 설득에 힘입어 7명의 항공인들은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뒤, 신설된 항공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최용덕은 초대 항공사령관에 올랐다. 이 항공부대는 1949년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공군의 모체가 되었다.

1948년 최용덕은 초대 국방부차관으로서 국군조직법에 공군 창군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는 이듬해 공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건국기모금운동의 실무를 책임졌다. 공군의 밖에서 창군과 발전에 힘썼던 그는 1950년 5월 14일 건국기 도입과 함께 공군으로 돌아왔다.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군으로의 귀환이었다.

에필로그

최용덕은 광복군에서부터 공군의 창군을 추진하고, 해방 후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삶은 공군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이것은 공군 창군 70주년과 맞물린 KBS의 다큐멘터리가 최용덕의 삶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1969년 8월 15일 숙환으로 영면한 최용덕에 대해 당시 언론은 그가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애도했다. 이번 다큐멘터리가 그가 더 이상 쓸쓸하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KBS 제작진의 열정과 김연중 대위의 고생도 함께 기억되길 바란다. 



건국공업박람회에서 한국항공건설협회가 설치했던 항공관



충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마지막 흔적을 찾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화지 청사
임시정부가 1945년 1월부터 11월까지 청사로 사용했던 곳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마지막 정착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1932년)와 뒤이어 발발한 중일전쟁(1937년)의 여파로 일본의 탄압과 전쟁의 위험을 피해 지난한 피란길에 올랐다. 상하이에서 시작해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을 거치며 4,000km 풍찬노숙의 피란 생활을 이어가던 임시정부가 1940년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충청이다.

임시정부는 1940년 4월부터 1945년 11월까지 약 6년여의 기간을 충청에서 활동한다. 이 때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청사는 현재 충청 연화지(蓮花池) 38호에 복원되어 있다. 이곳 연화지 청사는 1990년대 초 충청 도시 재개발 계획으로 헐릴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 독립기념관과 중국 충청시의 합의로 1995년 복원되어 수차례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청사가 복원된 덕분에 매년 많은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아 이곳을 방문한다. 그리고 청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구지’라는 제목의 설명문이 보인다. 설명문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5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마지막 청사’

연화지 청사는 1940년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가 11개월 동안 사용한 청사다.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한 뒤에도 청사는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이다.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사용한 청사는 총 네 곳이다.

현재는 그 위치만을 짐작할 뿐인 양류가(楊柳街/양류제), 석판가(石板街/스반제) 청사와, 공사장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오사야항(吳師爺巷/우스예상) 청사는 임시정부가 연화지 청사에 정착하기 전 집무를 수행했던 곳이다. 특히 오사야항 청사는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약 3년여 간 머무른 곳이며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탈고한 곳이기도 하다. 1932년부터 고난의 피란생활을 계속했던 임시정부가 충칭에서조차 이동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임시정부 오사야항 청사 터
2013년 철거된 오사야항 청사 터에는 현재 공사장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철거 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구지’라고 표기된 표지석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같이 철거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청사 이동
충칭에서도 계속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청사 이동. 연화지 청사 전시관에는 양류가, 석판가, 오사야항, 연화지 청사의 당시 위치를 짐작케 해주는 지도가 있다.



충칭대폭격 참상 유적지
충칭 시내에는 당시 폭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참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제18세대 방공 터널을 보존하여 유적지로 만들어놓고 있다.

충칭대폭격의 피해자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이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자 중국 국민당정부는 충칭을 전시 수도로 결정한다. 이에 일본은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충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일본은 중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 전쟁 의지를 꺾고자 했던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폭격이 가해진 기간 동안 충칭 시민 15,000여 명이 사망하고 20,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1941년 6월 5일





연화지 청사 뒤편에 위치한 방공호

폭격의 위협이 잦아들었던 1945년에도 일본의 폭격이 남긴 잔상은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에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제18세대 방공 터널에서는 하루만에 1,200여 명의 시민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폭격을 피해 방공호로 몰려든 시민들이 수용인원 초과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아비규환이 된 방공호에서 죽어갔던 것이다.

임시정부의 잦은 청사 이동도 일본의 폭격에 기인한 것이었다. 양류가와 석판가 청사에서 임시정부가 이동한 것도 일본의 폭격으로 청사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오사야항 청사도 폭격으로 인해 건물이 일부 붕괴되었지만,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규모가 큰 연화지 청사로 이동한 후에는 다시 복구하여 임시정부 요인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고난에도 이어진 독립을 향한 열망

폭격이 끊이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독립을 향한 임시정부의 의지와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한 뒤 세금과 독립자금,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공식적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적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특히 중국 내 산재해 있는 무장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해 통합된 정규군을 편성하는 일은 임시정부의 지상과제였다.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해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5일 한국 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 명의로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9월 17일 가릉빈관(嘉陵貧館/자링빈관)에서 성립 전례식을 열며 한국광복군을 창설한다.

한국광복군은 이후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미국 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OSS)과 국내침투를 위한 공동작전을 구상하는 등 독립을 위한 군사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광복군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 열린 가릉빈관 추정지

가릉빈관의 외형과 건물을 돌아나가는 도로 형태의 유사성에 근거해 현재 가릉신로 18호의 위치가 가릉빈관의 터로 추정된다.



한국광복군 내 공군 창설 노력

한국광복군의 창설 초기 상황은 열악했다. 30여 명 규모로 창설되어 모병의 필요가 컸고,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중국 국민당정부의 승인도 필요했다. 이에 광복군은 중국군사위원회 예속을 조건으로 한 '한국광복군행동 9개 준수'를 받아들여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보유 병력과 중국의 지원이 부족했던 광복군은 항공력 도입을 통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했다. 항공력 활용 시 소수의 병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투에도 직접 가담해 연합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광복군은 1943년 8월 공군설계위원회를 조직해 공군 창설 계획을 수립한다. 당시 광복군 총무처장을 역임했던 최용덕은 공군설계위원회 부주임으로 선임돼 실질적 책임을 지고 공군 창설 계획을 진행했다.

아쉽게도 당시에는 항공기를 보유한 공군 창설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공군 창설 및 작전 계획을 구상하고 비행사를 실제 양성하는 등 항공력 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열악했던 당시 광복군의 활로를 개척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은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몇 주년이 되는지를 기념하는 것은 흔히 그 성장 과정을 축하하기 위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래되어 잊힐 수 있는 역사를 다시 기억해내자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자료와 유적들도 풍화되어 간다. 올해 임시정부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내년에는 한국광복군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AF**



광복군총사령부청사

2019년 3월 29일 기념식을 갖고 추용로 39호에 광복군총사령부 청사 복원을 완료하였다. 현재 청사는 관리 문제로 인해 기념식 이후에도 일반에 개방되고 있지 않다.





2019 ADEX/사천에어쇼 전격 해부

국민과 함께 즐기는 공군 창군 70주년



이제 10월은 에어쇼의 달이라고 불러도 좋다. 매년 10월에는 어김없이 공군의 에어쇼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올해는 ADEX와 사천에어쇼가 함께 열린다. 2019 ADEX는 서울공항에서 10월 15일(화)부터 20일(일)까지, 2019 사천에어쇼는 제3훈련비행단과 그 인근에서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개최된다. 공군과 함께 70주년을 즐기고 싶은 이들이라면, 이 행사들이 제격이다.



2019 ADEX

대한민국 최대의 항공축제, ADEX!

서울 ADEX 2019(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9)는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생산제품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와의 기술교류 확대를 통하여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된다. ADEX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주관하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육·공군본부, 해병대, 방위사업청,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비즈니스 데이(10. 15.(화)~18.(금)), 학생들이 관람 가능한 스튜던트 데이(10. 18.(금)), 시민들이 관람 가능한 퍼블릭 데이(10. 19.(토)~20.(일))로 구성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에어쇼뿐만 아니라 각종 항공기 및 장비 전시, 세미나 및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전시

이번 ADEX에는 공군 창군 70주년을 기념하는 실외 행사와 전시가 포함되어 있다. 10월 19일(토) 14:30부터 ADEX 행사장에서 열리는 70주년 기념 실외행사는 고공강하 시범, 의장대 공연 등의 식전행사와 개식사, 국민조종사 임명식¹⁾, 축하비행 등으로 이뤄져 있다. 비행관람대 인근에 설치되는 항공우주전시

관에는 창군 70주년 특별존이 설치되어 김정기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실물과 관련 영상, 공군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 등이 준비된다. 이와 함께 전시되는 '최강의 정예 공군존', '스마트 공군존'에서는 '디지털 거울 활용 군복체험', '전투기 VR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한·미 연합공군 고공강하 등 화려한 에어쇼

ADEX 최고의 볼거리는 역시 하늘에서 펼쳐지는 에어쇼다. 공군 주력 항공기의 축하비행부터 블랙이글스²⁾와 호주 폴 베넷 에어쇼팀의 특수비행. 이와 더불어 국산항공기 KT-1과 T-50, 미 공군의 F-16, C-17의 시범비행이 행사 전일 예정되어 있으며, 한·미 연합공군³⁾이 함께 펼치는 고공강하 시범도 볼 수 있다.

지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항공기, 색다른 체험

지상에서는 한국군 최신예 기종(F-35A, KC-330 등)을 비롯하여 미국 F-35B, F-22 등의 항공기를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창군 70주년 관련 공군 전투기 및 훈련기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지상전시존이 마련될 예정이며, F-86F는 좌석까지 완벽하게 복원되어 관람객들이 직접 탑승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행사장에 마련된 항공우주체험장에서는 조종사훈련 체험, 신궁 시뮬레이션 체험, EOD 임무 체험, 특수 임무반 임무 체험 등 공군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며, 전투기 모형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낙하산 에어바운스 등도 즐길 수 있다.

1) 올해는 창군 70주년 기념으로 7명의 국민조종사를 선발하여 비행체험을 실시한다.

2)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행사 전 기간 풀쇼로 진행되며, 스튜던트 데이와 퍼블릭 데이에는 지상세러머니도 함께 펼쳐진다.(10.15.~18./일일 1회, 10.19.~20./일일 2회, 10.18.~20., 단 개막식은 변경 가능)

3) 미 공군 고공강하팀(Wings of Blue)은 Air Education and Training Command 19th Air Force 306th Flying Training Group (교육훈련사령부 19공군 306훈련비행전대) 소속으로 고공강하를 위한 전세계 유일의 자격 과정 프로그램 (AM-490)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회 이상 시범강하를 실시한다

2019 사천에어쇼

대한민국 남부지역 유일의 에어쇼, 사천에어쇼!

대한민국 남부지역 유일의 에어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의 명칭이 올해부터 '사천에어쇼'로 변경되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제3훈련비행단·사천시·경상남도·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공동주최로, 대한민국의 공군력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국민에게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미래 항공우주의 꿈을 심어주는 체험의 장이다.



대규모 축하비행부터 에어쇼까지, 9개 분야 109개의 프로그램

사천에어쇼의 하늘에는 축하비행과 에어쇼를 비롯해 비상탈출한 조종사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전투탐색구조 시범', '고공강하 시범' 등이 펼쳐진다. 지상에도 4차 산업혁명 체험존, 항공청소년의 날, 항공기 무장전시, 공군 군악대 공연과 의장대 시범, 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사천에어쇼에서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와 해외민간 곡예비행팀인 폴베넷 에어쇼팀을 만나볼 수 있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지상 세레머니부터 이륙, 착륙까지 모든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Full-Show

로 이루어져 있다. 폴베넷 에어쇼팀은 전 세계에서 단 3대만 존재하는 Wolf Pro 항공기로 화려한 곡예비행을 펼쳐 아찔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잊지 못할 추억을 원한다면? 체험비행 참여로!

체험비행은 사천에어쇼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공군 수송기, 공군 헬기, 대학항공기와 경량항공기, KT-1 시뮬레이터 탑승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 사전 접수는 끝났지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개막식날을 제외한 10. 25.(금)부터 27.(일) 오전 3일 동안 체험비행 현장추첨을 진행한다. KT-1 시뮬레이터 체험은 실제 KT-1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과 똑같이 재현되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체험 전 참가자들은 간단한 비행교육을 받은 후 시야를 가득 채우는 돔 스크린 안에서 실제 항공기와 동일한 환경에서 조종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편의시설 확대 운영으로 더 편리하게!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내 휠체어 및 유모차 무료 대여소, 그늘막 쉼터, 이동화장실 등을 확대 운영한다. 행사장에는 대형버스, 장애인(탑승) 차량, 행사 승인차량 외에는 안전 문제로 차량 진입이 제한되지만 1만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여 10~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기차를 이용하는 관람객을 위하여 진주역에서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총 2,000여 명의 공군 장병, 자원봉사자, 공무원, 경찰 등 안내요원이 곳곳에 배치되어 행사 안전과 편의 제공에 힘쓸 것이다. ^{4F}

자세한 일정은 [ADEX 공식 홈페이지\(www.seouladex.com\)](http://www.seouladex.com)와
[사천에어쇼 공식 홈페이지\(www.festival.aerospace.go.kr\)](http://www.festival.aerosp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ADEX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2019. 10. 15.(화)~20.(일)

서울공항

전문관람일 10. 15.(화)~18.(금)

일반관람일 10. 19.(토)~20.(일)

학생의 날 10. 18.(금)

예매처:티켓링크



www.seouladex.com

- 주최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후원 |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대한민국 육군 Republic of Korea Army | 대한민국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대한민국 해병대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성남시 Seongnam City



세이
Sacheon AirShow

사천에어쇼

에어쇼 / 체험비행 / 항공대회 / 항공청소년의 날 / 체험교육

2019. 10. 24.(목)~27.(일)

사천비행장



- 대한민국 공군 | 경상남도 | 사천시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AIRSHOW | Sacheon



제1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대공방어대 시위를 당기는 사람들

제18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 장병들. 뒷줄 왼쪽부터 상병 박형근, 일병 서동진, 일병 김정환, 일병 최건호, 하사 박진기, 병장 방예찬, 병장 김민우, 일병 구본재, 상병 김민준, 일병 이동한. 앞줄 왼쪽부터 일병 허유승, 상병 박종인, 일병 김수영, 상사 임병찬, 중사 박영웅, 일병 한원희, 일병 박원찬, 상사 이진혁, 상사 이재형, 상병 김현수.



독자들 중에는 ‘포’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이들이 있을 것 같다. ‘포병’이라는 단어는 육군의 전 유물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공군에도 포병이 있다. 바로 지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방공포병 특기 장병들이다. 이들은 영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로 산속 포대에서 근무하지만, 비행기지 상공에 방공망을 형성하는 대공방어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대공방어대 인원들은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하며 근무한다. 기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방공무기는 5분 대기, 30분 대기 등의 완벽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5분 대기란 유사시 5분 안에 정상적인 사격이 가능한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과의 대부분을 야외 진지에서 진행하는 이들은 추위 또는 더위와 싸우는 것이宿命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지 방공의 중추, 대공방어대 장병들을 만나본다.



01

- 01. 5분 대기 중 포대 진지로 달려가는 발칸 운용요원들.
- 02. 망원경으로 하늘을 감시하는 임병찬 상사. 그는 18전비 대공방어대의 발칸분대장이다.
- 03. 5분 대기 중인 발칸의 탄창. 보기만 해도 육중한 탄약이 그득히 들어있다.
- 04. 발칸 사수를 교육하기 위해 운전석에 올라타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임병찬 상사.
- 05. 조준경을 들여다 본 모습. 중간에 선명하게 켜진 조준원이 마치 슈팅게임 화면을 보는 듯 했다.



02

20mm 견인대공포, ‘발칸’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방공포다. 여섯 개의 총구가 불을 뿜으며 타원형의 화망을 형성해 적기의 접근을 저지한다. 발칸은 적기를 조준하여 격추하기보다는 공중에 화망을 형성해 기지 상공으로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03

발칸은 기본적으로 4인 1조로 운용하는데, 운전석에 탑승하는 사수와 뒤편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사격 지시를 내리는 분대장, 탄약을 공급하는 두 명의 탄약수가 그 구성이다. 발칸과 같은 단거리 방공무기는 육안으로도 상황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대장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살피며 사수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발칸은 무게가 1.5톤에 이르는 무겁고 큰 장비다. 장비를 운용하다가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에 가장 유의하고 있다. 훈련에 나설 때나 및 장비를 점검할 때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04

05

- 06. 신궁 유도탄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 유도탄 한 발에 약 1억 8천만 원을 호가한다.
- 07. 신궁 발사대를 조립하는 장병들. 포탄을 꺼내 발사대에 장착 하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 08. 발사대 아래에서 방향을 지시하는 표식. 상황을 통제하는 기지방호작전과와 사수가 동일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을 640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 09. 본대장과 사수가 신궁을 운용하는 모습. 신궁은 5km 이내의 적을 조준하여 사격하기에 육안으로 식별하며 교전이 가능하다.

대공방어대는 발칸에 더해 저고도 요격용 무기체계로 신궁을 운용하고 있다. 신궁은 휴대용유도탄으로서 발사하면 적외선 유도 방식을 통해 목표물까지 날아가 정확하게 요격한다.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모습처럼 어깨에 매는 형태는 아니지만, 거치대와 여러 장비들을 이동시키기에 두 명의 장병이면 충분하다. 장착된 탐지 장비는 신호정보를 통해 다가오는 항적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이 가능하고, 사수가 표적을 확인해 발사하면 따라가 격추하는데 그 명중률은 세계적 수준이다.

실제로 추적훈련 장비를 살펴보니 발사대에 장착된 레이더가 항공기에서 내보내는 특정 주파수를 분석해 현재 포착되는 항공기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해 사수에게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고, 간단한 조작을 통해 표적을 설정해 교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수가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한 것이다.

18전비 대공방어대에서 휴대용유도탄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영웅 중사는 “평시에는 부서원들이 장비 운용을 위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범을 활용한 이론교육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습으로 지식과 장비 운용능력이 향상되도록 훈련하고 있다.”며 “또한 추적훈련 장비 등을 활용해 실제 항적 탐지/포착, 적아를 식별하는 모의교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공포 운용요원의 교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발칸 정비 안에는 2개의 축전지가 있는데, 정비사가 좁은 공간에서 약 25kg의 축전지 두 개를 들어 올리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허리를 다칠 수 있다. 또 축전지 셀 안에는 위험물질인 30% 수산화칼슘(KOH) 증류수 용액이 전해액으로 들어있는데, 이 전해액은 전기와의 화학반응으로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취급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발칸을 정비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진혁 상사. 그의 눈빛에서도 숙련도를 느낄 수 있다.

군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화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것이다. 대공포 역시 화기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의 필수다. 공군의 발칸정비사는 발칸을 완전히 분해해서 재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도가 뛰어나고, 자체적인 정비가 가능할 만큼 숙련되어 있다.

정기적인 계획정비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고장의 위험이 있는 부품은 미리 확보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도 이들의 임무다. 발칸이 언제나 사격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운용요원들의 수고도 있지만, 정비요원들의 완벽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18전비 대공방어대 정비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혁 상사는 하사 시절부터 교범을 밤낮으로 읽으며 베테랑 정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보낸 세월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공군은 매년 발칸 실탄 사격대회를 실시하는데, 이때 각 부대 정비사들은 통합정비반에 파견되어 사고 예방 및 고장정비를 수행한다. 이 상사도 차출되어 파견된 경험이 있다. 그는 “실탄 사격 중에는 자대에선 볼 수 없는 여러 고장증상 및 상황이 발생하는데, 한번은 사격 도중에 장비가 멈춰 열어보니 실탄이 내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장비 일부분을 아예 교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러 부대에서 모인 정비사들이 손발을 맞춰 금방 해결하기도 했습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발칸 속 작은 부품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작은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 이진혁 상사.



분리해 나열해놓은 부품을 정비하는 모습





이재형 상사가 감시장비를 조작하고 있다. 피아식별을 위해 정해진 암호 및 코드를 정해진 시간마다 레이더 장비에 입력해줘야 한다.



이재형 상사가 감시요원과 데이터 전송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낮은 고도에서 침투하는 항적을 식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본적으로 부딪혀 돌아오는 전파를 탐지하는 것이 레이더의 방식인데, 고도가 낮으면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공군은 저고도 및 초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방공부대 및 대공무기체계에 적 항공기에 대한 조기경보 및 사격제원을 전파하여 실시간 방공포병작전이 이루어지도록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특수한 부분이기도 하나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것 역시 방공포병 장병들의 임무다.

레이더 감시임무는 한 사람이 보는 시간을 최대 한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피로도가 쌓이기도 하고, 그 이상은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저고도 탐지 레이더의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감시임무를 편성 및 부여해 육군 4개 부대와 함께 균등하게 감시임무를 수행하는데,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에도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타 부대의 장비고장 혹은 기상 등 각종 상황으로 인해 추가 감시 임무가 주어지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도 즉시 복귀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공포병 특기를 가진 장병은 공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오늘도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영공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시위를 당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며 매일매일 꾸준해야 하는 것은 지루하고 힘든 일이겠으나,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한 가지다. '내 가족을 포함한 국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자신이 깨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넓고 푸른 하늘을 보며 가슴이 탁 트이는 경험을 하는 것과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수고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닐까. 오늘도 하늘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응원한다.' **AF**

이재형 상사가 임무요원 대기실에서 레이더 감시임무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고생하는 병사들이 늘 마음에 쓰인다고 했다.

작동 중인 저고도 탐지 레이더. 레이더는 유사시에 전개할 수 있도록 이동형으로 제작되었다.





제9화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교양학처 군사학과
강창부 교수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의 이름으로 보내는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을 만나다.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교양학처 군사학과 강창부 교수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까지 가늠할 수 있다.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 공군은 70년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발판삼아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자, 다양한 역사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의 운영은 그 일환이다.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교수이자 70년사 편찬위의 대표 실무자인 강창부 중령은 생도들에게 전쟁사를 가르치며 공군의 기록들을 돌아보고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10월 1일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일에 KBS에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의 기획, 촬영, 제작 전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본인이 먼저 훌륭한 교수가 되어야 생도들 또한 훌륭한 경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강창부 교수. 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저는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군사학과에 소속되어 사관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1993년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영국에서 현대사를 전공하여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군사사(軍事史)를 전공했고, 현재는 군사학 전공 생도들뿐 아니라 그 외 전공 생도들을 대상으로 전쟁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공 및 교양 과목을 두루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공군 창군 70주년과 내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운영되는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와 ‘6·25전쟁 공군사 연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다룬 4개의 역사서(20년사, 40년사, 50년사, 60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술된 역사의 적지 않은 부분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 회고와 증언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사람에 따라 상충한다는 점이지요. 더 심각하게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조명된 팩트(Fact)보다는 오히려 기억을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번 ‘70년사’에서는 항공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공군의 창군, 나아가 공군사관학교의 개교 간 역사적 연계성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사’를 구성하는 각 장(章)은 당장 학술저널에 기고하여도 충분히 수록될 수 있을 정도의 역사학적 수준을 갖추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2학기 개강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중인 강창부 교수

‘우리들만의 회고록’이 아닌 ‘진정한 역사서’

기존에 편찬된 역사서에서 완전히 놓치고 있거나 잘못 읽었거나 했던 사건들을 적지 않게 발견했습니다. 기존의 역사서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인물들도 그 정당한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십 번에 걸친 사료수집 목적의 출장을 통해 귀중한 사료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 들어 공군 전체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이 가장 보람있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도 멀지만요. 저희가 편찬하는 ‘70년사’는 ‘우리들만의 회고록’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서’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적 전문성을 최대한 녹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70년사’에서는 공군사관학교가 지난 70년의 역사를 통해 어떤 것들은 잘 해왔는지, 반면에 어떤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꺼안고 있는지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냉철한 자기진단이 없으면 공군사관학교의 100주년도 오늘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노력이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여러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처절한’ 자기진단과 반성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사관학교 교수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학위교육을 하는 교수라는 정체성, 다른 하나는 현역 장교입니다. 일반대학 교수들은 경험하지 못할 이 상황이 더러는 유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러저러한 현실적 제약을 가져다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문제, 시간을 쓰는 문제, 이러저러한 직무를 맡는 문제 등에서 두 정체성이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와 마주했을 때 결국은 처한 상황에 따라 두 개의 정체성 중에서 제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를 현명하게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부분은 지식보다 지혜와 경륜이 더 필요한 법이더라고요.

교수로서의 정체성



60기 생도들로부터 받은 감사패와
우수한 교수업적평가를 거두어 받은 상장

교육철학



강창부 교수가 영문을 번역하여 발간한
군사·역사학 분야의 도서들

‘내가 된 만큼만 남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공군과 공군사관학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생도들에게 공군과 공사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는 없겠지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먼저 훌륭한 교수가 되어야 저에게 배우는 생도들 또한 훌륭한 경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제 거울인 셈입니다. 그들을 통해 저를 읽을 수 있죠. 때문에 저는 현재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위의 어떤 분들은 제가 늘 무언가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보며 “그 계급과 나이에도 왜 그렇게 숨 가쁘게 살아가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같은 사관학교 교수들은 2개의 정체성 모두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2개의 정체성 모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물리적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제가 가르치는 생도들이 바르게 서도록 지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까요.

존경하는 인물

최근에 저는 ‘공군의 아버지’ 최용덕 장군에 대해 많은 연구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공군본부 ‘하늘사랑 아카데미’에서 전임 총장님과 여러 부실단장님 등을 모시고 “살아서도 공군, 죽어서도 공군 - 최용덕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지요. 아울러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공군과 KBS가 함께 제작하고 있는 최용덕 장군 관련 다큐멘터리의 기획, 촬영, 제작 전 과정에도 깊숙하게 관여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역사적 기여뿐만 아니라 청렴함과 강직함 또한 존경합니다. 세상을 사는 통상적인 ‘지혜’와는 도통 거리가 멀었던 그분의 인생은 제게 더욱 군인답게 느껴졌고, 본인이 한 일에 대해 본인의 입으로 자랑하거나 장황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모습도 제게는 매우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군 하늘사랑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는 강창부 교수



공군 창군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취재를 위해 제작진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강창부 교수(가장 오른쪽)

저는 종강을 할 때마다 제 강의를 들은 생도들에게 “흔적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라고 권합니다. 사람은 모태에 있는 시절부터 매 순간마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곧 끊임없이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지요. 문제는 내가 남기는 흔적을 나는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저를 뒤따라오는 이들은 그것을 평가하고 길라잡이 삼아 그들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지요. 저는 교수로서 매 강의가 생도들의 마음에 중대한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흔적을 남기고자 전력을 다해 강의합니다. 특히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 이들에게 제가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의식은 제가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나쁜 흔적이 남겨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제가 남긴 흔적은 뒤따라오는 사람을 첩경으로도 혹은 벼랑으로도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이정표

창군 70주년을 맞이하여, 월간 『공군』 독자들에게



역사가로서 올해 공군 7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서 그동안 발간해 온 『코메트』나 『공군순보』와 같은 저널들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훗날 공군의 100년사를 정리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공군』도 중요한 사료(史料)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독자들께서 『공군』을 더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공군』을 탐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 행복하고 강건하셨으면 합니다. AF



그날, 우리 하늘

숨겨진 항공기헌납운동



▲ 대한민국공군 3개년계획안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 공군은 고작 병력 1,897명과 경항공기 22대(훈련기 10대, 연락기 12대)를 보유한, 사실상 '적수공권(赤手空拳)'¹⁾의 상태에서 미증유의 전쟁과 마주했다. 그러나 휴전 무렵 공군은 병력 11,461명, 항공기 110대(F-51D 79대 포함)를 갖춘 항공전력으로 부쩍 성장해 있었다. 전쟁 중 대한민국 공군은 총 14,163회(F-51D 8,457회 포함) 출격하여 유엔군의 항공전역 수행에 일익(一翼)을 담당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전력 증강의 과정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원조'라는 프리즘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전쟁 발발 직후 F-51D 10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된 미국의 항공기 원조와 미(美) 제6146 공군기지부대로 상징되는 일련의 지원활동이 대한민국 공군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였던 것이다. 일방적인 '시혜자(施惠者)' 미국이 '수혜자(受惠者)' 대한민국 공군을 살린 것이었다. 그러나 1951년 '항공기헌납기금모집운동'은 이러한 해묵은 설명의 틀에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쟁 발발 직후 F-51D 10대가 대한민국 공군에 제공된 뒤 후속 공군력 확충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나는 1951년 6월 시점에 우리 공군은 F-51 21대를 포함하여 총 46대의 항공기를 갖추고 있을 뿐이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비행훈련의 부족을 야기했고, 이는 또 다시 항공기 부족을 가속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공군일지』와 『항공기 사고 통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전 후 한 해 동안 최소 46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다. 중요한 점은 그중 상당수(46건 중 절반)가 조종사(드물게는 정비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불충분한 훈련이 초래한 결과였다.

항공기 부족이 비행훈련 부족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훈련 부족이 항공기 부족을 심화하며, 항공기 부족이 다시 비행훈련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근원적 문제인 항공기 부족을 해결하는 길밖에 없었다. 우리 공군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던 조치들은 다분히 임기응변적이고 더러는 '웃픈' 것이었다. 그중 하나는 추락한 항공기의 가용한 부품들을 재활용하여 새롭게 항공기를 조립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해결책다운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한국에서 공군은 별도로 유지될 필요 없이 근접지원을 위해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원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웠다.

공군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1949년 '애국기헌납운동'에서 찾았다. 이 전국적인 운동을 통해 T-6(전국기) 10대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던 경험은 공군으로 하여금 1951년 7월 5일에 '공군기금정책 수립과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회의를 열어 제2의 항공기헌납운동을 전개할 것에 뜻을 모으게 했다. 항공사상을 보급하고 헌납운동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서 마해송(馬海松) 작가가 이끄는 '창공구락부(蒼空俱樂部)'의 다양한 활동 계획이 논

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군의 구상은 국방부에 의해 한층 구체화되었다. 같은 달 21일에 개최된 차관회의에서는 ‘훈련용 경비행기 구입의 건’이 상정되었고, 5일 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장관(이기붕)이 ‘항공기헌납기금모집요강’을 제출하고 국민운동의 전개를 확정하였다. 이 요강은 조종사와 정비사를 양성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훈련기 1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헌납금을 모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요강에서 국방부는 고급 훈련기와 보통훈련기 각 50대를 구입하는 데 175만 달러, 즉 1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고, 이를 위해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총 745만 명을 대상으로 모금액을 거출(擧出)하고자 했다. 정부에 소속된 각종 관공리(官公吏), 현역 군인과 군속, 각 학교와 종교단체, 극장과 흥행(興行)²⁾, 회사와 각 공장 등이 모금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헌납금 거출의 건이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8월 6일이었다. ‘비행기 헌납금 거출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한 의원은 전날 졸업한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83명이 비행기가 없어서 “울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원들도 세비(歲費) 중 1할을 헌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러한 움직임이 국민에게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미국의 원조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있고 약 1주일 뒤에 『동아일보』는 대공(大空)은 방위제일선, 항공기를 한 대라도 더 구입, 헌납운동에 자진 참가하자라는 제하(題下)의 사설을 실었고, 국방부장관도 방송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반응은 주목할 만 했다. 북한에서 남하한 피난민들이 헌금하는가 하면, 1949년에도 비행기 구입자금을 헌납했던 한 인사는 “공산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고 멸공성전(滅共聖戰)을 하루 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삼천만이 비행기 구입기금 헌납운동에 애국지성을 발휘하라”는 헬서와 함께 성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애초 모금기간으로 설정되었던 3개월 동안에 헌납된 총액은 1억 2천만여 원에 불과했다. 이듬해 4월까지 기간을 연장했지만 1952년 들어서는 성과가 더욱 제한되었다.

모금된 총 금액과 그 결과가 항공전력의 확충에 기여한 정도만을 놓고 본다면 1951년의 항공기헌납운동은 1949년의 그것과는 달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숨겨진’ 헌납운동은 6·25전쟁기에 원조의 결정적인 주체였던 미국에게 공군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항공기의 구입을 시도하며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오는 우리 공군에게 미국은 우선 한국 공군의 전력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자국의 정책이 정립될 때까지 항공기 구입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시에 “헌납

운동의 본지(本旨)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연습기 20대 이내로 한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전달했다. 이는 1949년에 한국이 헌납운동을 통해 모금한 자금을 활용해 항공기 구입을 시도했을 때 “항공기 판매정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던 것과 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다.

‘제2의 헌납운동’은 한국 공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 구상이었던 『(대한민국공군) 3개년계획안』의 수립에도 자극제가 되었다. 헌납운동이 애초의 기간을 연장해 여전히 진행되고 있던 1952년 3월, 공군은 전력 증강을 위한 3개년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외적으로는 미국 국회·국방성·합참·공군상·주한 미 대사관 등의 기관과 제5공군사령관에게, 대내적으로는 정부 주요 부처와 국회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했다. 이 계획은 1952년 4월부터 1955년 3월까지 3년에 걸쳐 F-84급 전투기를 주력으로 하는 4개 비행단, 즉 300기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을 건설하고자 했다. 이 계획서에서 공군은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게 곤란한 경우에는 “자력으로라도 해결하겠다는 결의만 있으면 만사는 용이하고 진전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결의”를 명기해 놓았다. 이러한 인식은 이 계획이 1951년 헌납운동의 동기와 인식을 그대로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쟁 중 진행된 헌납운동이 보여준 현실적 한계와, 그와 동시에 다시금 확인된 공군력 증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공군으로 하여금 더욱 체계화된, 그러나 한층 더 야심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헌납운동이 제2기에 접어들었던 1951년 연말에 공군 총참모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성의 있는 군사원조”도 기대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주적 위치에서 우리 국방력을 건설해야만 될 것으로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총 역량을 기울일 것”도 분명히 했다. ‘숨겨진’ 1951년 항공기헌납운동은 공군력을 건설하려는 한국의 “자주적” 노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6·25전쟁기 대한민국 공군은 불가피하게 미국의 군사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쟁기의 공군력 증강은 일방적인 ‘시혜·수혜’의 도식적 메커니즘으로 는 온전히 그려낼 수 없는, 보다 상호작용적인 과정의 결과였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연타기를 조종하여 적에 최대한 근접해 손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며 그들의 진격에 저항했던 사건에 못지않게 공군 선배들의 처절한 분투(奮鬪)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그러나 철저히 숨겨진) 드라마는 바로 ‘제2의 항공기헌납운동’이었다. ^{AF}

* 이 글은 강창부, 이지원, 임혁, ‘6·25전쟁기 한국의 공군력 확충 노력 : 1951년 ‘항공기헌납기금모집운동’을 중심으로’, 『동북아 연구』 제33권 2호(2018) 요약 발췌한 것임.

1) 적수공권 : 빈손과 맨주먹,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의미함.

2) 흥행 :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 받고 보여주는 것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최선봉! 제11전투비행단

공군 주력 전투기들을 전력화한 '대한민국 전투기들의 요람'이자 '전승의 독수리' F-15K 슬램 이글을 운용하는 최정예 비행단,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소개한다.



▲ 제11전투비행단 창설식

최강의 전투비행단이 되기까지

제11전투비행단은 6·25 전쟁 이후 전력증강계획인 '무술작전'의 일환으로 1958년 8월 1일 김포기지에서 창설됐다. 같은 해 F-86F 2대를 인수하고 1년간 부대편성을 완료하여, 1959년 9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임석하에 비행단기 수여식을 거행하며 전투비행단으로서의 체계를 확립했다. 1970년 대구기지로 이전한 제11전투비행단은 당시 최신에 전투기인 F-4D를 주력기종으로 운용했으며, 이후에도 F-4E와 F-16을 최초로 도입해 운용했다. 2008년 7월에는 F-15K를 성공적으로 전력화하며 우리 공군을 대표하는 최강의 전투비행단으로 자리매김했다.



▲ F-4D 인수조종사 환영식

전투기들의 요람

올해 창단 61주년을 맞이한 제11전투비행단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을 전력화한 '전투기들의 요람'이며 전력증강의 중심부대다. 1958년 창설 당시 F-86F 전투기를 최초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1969년 8월 F-4D, 1977년 9월 F-4E, 1986년 4월 F-16을 최초 도입하여 운용하였으며 2005년 10월에 최초 도입된 F-15K는 2008년 7월 전력화되어 현재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F-4D, F-15K 고별 우정비행

F-4D의 시작과 끝

제11전투비행단 제151전투비행대대는 1969년 도입되어 '미그기 킬러(MIG Killer)', '하늘의 도깨비' 등의 별명으로 불리며 영공을 수호해 온 F-4D 팬텀 전투기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다. 제151전투비행대대는 F-4D 도입과 함께 창설되어 41년간 F-4D를 운용했으며, 2010년 6월 16일 F-4D 퇴역식 시 대대 해편식을 같이 가졌다. 이날 퇴역식은 F-4D의 고별비행과 F-15K의 임무교대 비행으로 시작하며 F-4D의 퇴역을 축하하는 동시에 F-15K에게 영공방위 임무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대한민국 공군 70년사에서 40년을 함께한 F-4D의 역사는 공군의 살아있는 신화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 F-15K 독도상공 비행

F-15K 슬램 이글

제11전투비행단은 F-4D의 명예로운 퇴역 후 F-15K를 운용하며 영공방위 핵심 전력을 보유한 최정예 전투비행단으로 거듭났다. F-15K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이다. 11톤에 달하는 무장능력에 SLAM-ER, JDAM 등의 무장장착으로 적의 화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적의 지휘부나 핵심시설 등 전략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2016년 12월 전력화된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함으로써 그 능력을 극대화했다. 또한 1,800km에 이르는 전투반경과 3시간에 달하는 체공시간으로 한반도 전 영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F-15K는 '슬램 이글(Slam Eagle)'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전승을 거두다', '타격을 가하다'는 의미의 '슬램(Slam)'과 F-15의 상징인 '이글(Eagle)'을 조합한 것으로, 전승을 달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하늘의 절대강자를 상징하고 있다.



▲ '18 RF-A 훈련참가 신고식

국가방위의 최전방

제11전투비행단은 다양한 위기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 역할을 도맡았다. 1971년 6월 '소흑산도 대간첩작전' 시 F-4D 편대가 출격하여 간첩선을 완전 격침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1983년 '이용평 대위 귀순작전'에 참가하여 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에도 KF-16과 함께 출격하여 추적 및 차단기동을 펼치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08년부터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하며 다국적 공군과의 훈련으로 연합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신장하고 있다. **AF**



단(부대) 마크

별 : 호국간성의 별, 공군 전투력의 근간인 비행단 표시
 독수리 : 국가 방위의 핵심전력인 공군 상징
 미사일 : 전투기 무장 및 적에 대한 응징 의미
 태극마크 : 대한민국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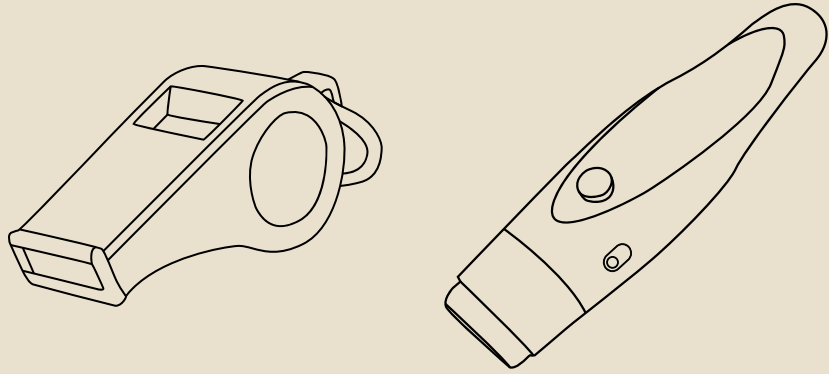
가로줄/세로줄 : 은하수를 상징하며, 동심원으로 확장되는
 형상은 미래와 우주로 향한 발전을 의미
 흰색 :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검은색 : 창공을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상징

주요 도표

- '58년 8월 김포기지에서 부대 창설
- '58년 12월 T-33 2대 인수, F-86F 전투기 최초 2대 도입
- '59년 6월 비행단 최초 3,000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69년 8월 F-4D 최초 도입 및 운용
- '70년 10월 김포기지에서 대구기지로 이전
- '77년 9월 F-4E 최초 도입 및 운용
- '83년 2월 이용평 대위 귀순 작전 수행
- '86년 4월 F-16 최초 도입 및 운용
- '05년 10월 F-15K 최초 도입 및 운용
- '08년 7월 F-15K 1차 전력화
- '08년 8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최초 참가
- '10년 6월 F-4D 퇴역 및 151대대 해편식
- '12년 4월 F-15K 2차 전력화
- '16년 12월 타우러스 전력화

공군소담 空軍小談

- 호루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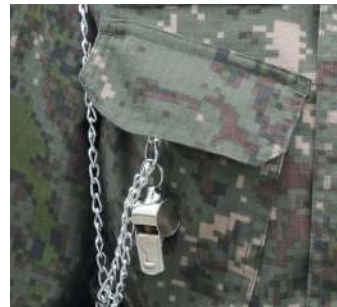
누구나 한 번쯤 호루라기 소리를 가슴 졸이며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호루라기는 100m 달리기의 출발선에, 스포츠 중계에, 훈련병 시절에, 경찰관의 교통정리에 함께한다. 호루라기는 작지만 무척 큰 소리를 낸다. 넓은 곳에서 간결하게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선 호루라기만한 것이 없다. 공군에서도 호루라기를 필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 공군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공군 교육사령부, 기지경계를 담당하는 헌병대대 경비중대, 출퇴근 시간과 중요행사 시에 교통통제를 담당하는 헌병대대 행사반에서 호루라기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필수품, 공군의 호루라기를 알아보자.



호루라기는 명확한 의사전달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되며 공군에서는 대표적으로 교육사령부 훈련조교 및 각 부대 헌병대대에서 사용한다.

공군에서 사용하는 호루라기의 종류

전통적인 호루라기



동그란 공간 안에 작은 구를 넣고 입으로 불면 공기가 빠져나갈 때 작은 구가 회전하며 큰 소리를 낸다. 흔히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으로 만든다.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작은 크기지만, 사람의 목소리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소리를 낸다. 각종 훈련이나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명확하고 간결한 의사전달 수단으로 사용된다.

전자 호루라기

호루라기 소리를 내는 전자장치이다. 크기는 10센티미터 이내로 100데시벨 이내의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졌다. 입으로 불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되기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소리의 종류도 다양해서 호신용, 교통정



리용, 심판용, 교육훈련용, 경비용 등으로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공군에서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호루라기보다는 사용률이 낮은 편이다.



호루라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위(진) 문지영 제16전투비행단 헌병대대 경비중대 경비2소대



호루라기는 경계근무를 서는 초병이 근거리에서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신호를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소대원들이 신호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때 호루라기는 우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소대훈련 시에는 소대원들을 지휘할 때 사용합니다. 신호규정에 따라서 적 발견, 사격실시, 사격중지, 적 도주와 같은 상황에 맞춰 호루라기 신호의 편의성, 즉시성 및 명확성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할 만한 도구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호루라기는 저에게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호루라기는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이다.



병장 민승기 제16전투비행단 헌병대대 헌병중대 행사반



호루라기는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때 주의를 집중시키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정문에서 교통통제를 할 때는 흰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교통신호봉과 호루라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때 호루라기 소리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움직임을 허락하는 신호로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부대행사나 교통통제에 호루라기의 도움이 워낙 커서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근무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호루라기는 항상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물건입니다. 호루라기는 제가 소리치는 것보다 더 큰소리로 명확하게 생각을 전달해주어서 친구처럼 믿음이 갑니다.

#호루라기는 나에게 믿음을 주는 친구이다.



병장 김병연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신병제3훈련대대



호루라기는 목소리를 대신하는 의사 전달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사람의 육성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호루라기 소리에는 훈련병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마력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루라기 소리는 먼도날처럼 날카롭고 송곳처럼 뾰족합니다. 미리 약속된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호루라기는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촘촘하게 짜인 일과표에 맞추어 훈련병들을 통솔할 때 목소리만 사용한다면 훈육조교의 목은 혹사당할 것이 뻔합니다. 처음 훈육조교가 되었을 때 선임 분께서 조교는 호루라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문이 들었는데 목소리만 사용해서 하는 교육의 한계를 잘 알게 된 후로, 이제는 저도 후임에게 똑같은 충고를 해줍니다. 사회에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휴대하듯 훈육조교는 호루라기를 휴대합니다. 현대인들이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처럼 저는 호루라기가 만져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AF

#호루라기는 훈육조교의 스마트폰이다.





— 2019. — 9.27. ~ 12.22. —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공군 창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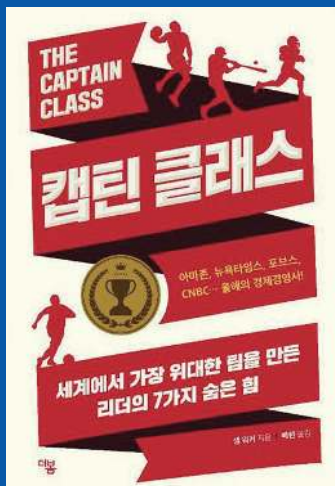


1·1·1 독서

1·1·1 독서운동은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를 목표로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월간 「공군」이 추천합니다!

지휘관 추천도서



[스포츠/리더십] 최고의 팀엔 최고의 '캡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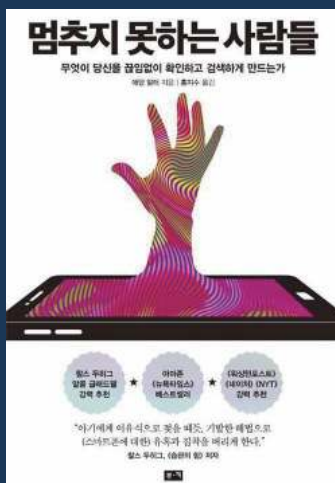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 그는 지금까지도 농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스타이지만 데뷔 후 6년간 소속팀 시카고 불스의 우승을 일궈내지 못했다. 팀원들은 그의 독설과 비난, 조롱을 두려워했고, 빌 카트라이트가 캡틴을 맡은 뒤에야 시카고 불스는 NBA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다.

조던에게는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 월스트리트저널 스포츠 전문기자인 저자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미식축구 등 37개 종목에서 ‘역사상 최고의 16개 팀’을 선정하고 그들의 공통점으로 뛰어난 캡틴의 존재를 꼽았다. 뛰어난 스타도 아니고 라커룸의 달변가도 아닌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통한 헌신으로 팀원들을 자극했다.

저자는 팀에 영감을 불어넣는 ‘뛰어난 캡틴’의 남다른 7가지 특징을 소개하며 다양한 종류의 시장 경쟁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캡틴 클래스’를 제시한다.

캡틴 클래스 / 샘 워커 / 더봄 / 7월 / 376p / 18,000원

일반장병 추천도서



[사회] 우리는 '행위 중독'을 멈출 수 있는가

일찍이 없었던 위협이다. 2000년 이전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중독 현상이 우리의 삶을 빠른 속도로 지배해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 평균 3시간 휴대 폰을 사용하고 곁에 없을 경우에는 불안함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낳은 이 강렬하고 매혹적인, 그러나 치명적인 체험에 대한 사로잡힘을 저자는 ‘행위중독’이라고 일컫는다. 또 기존의 물질중독(약물중독)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규명한다.

테크놀로지는 선악이 없다. 단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안타깝게도 오늘날 테크놀로지 산업은 중독 유발쪽으로 기울어있다. ‘목표, 피드백, 향상, 난이도, 미결, 관계’라는 인간의 욕구를 찌르는 여섯 요인이 중독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행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발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최고의 연구서로 평가받는 이 책은 행위 중독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제기하면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 애덤 알터 / 부키 / 8월 / 420p / 22,000원



필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굳건한 한미 동맹

THE STRONG ROK-US ALLIANCE

공군작전사령관·美7공군사령관 지휘비행

9월 5일(목) 공군작전사령관과 美7공군사령관은 제18전투비행단을 함께 방문하여 F-5 지휘비행을 실시하고, 영공방위에 매진하고 있는 조종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한미 사령관의 지휘비행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도 한미 공군은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해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성공적으로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공무기계계 기술발전 세미나

참모총장은 9월 6일(금)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항공무기계계 기술발전 세미나를 주관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국방신기술의 항공무기계계 적용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항공기술, 항공전자/소프트웨어 분야 관계자 6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공군참모총장 환영사 ▲정경두 국방부장관 축사 ▲임철호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장, 박창규 건국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연구원장 기조연설 ▲항공기술, 항공전자/소프트웨어 분과별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민·관·군 항공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바람직한 기술 적용방향에 대해 상호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했다.”며 “민·관·군 협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항공 우주력 건설을 통해 군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우고, 민간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증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군 주임원사단 회의 주관

참모총장은 9월 3일(화) 공군본부에서 독립전대급 이상 주임원사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주임원사단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부서관과 병을 대표하는 동시에 부대 지휘관을 보좌하고 있는 주임원사들을 격려하고 “군 기강이 바로 서고 신바람 나는 병영문화 창달”을 위한 주임원사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모총장은 주임원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오찬 하며 일일이 격려하는 가운데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주임원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훈비,
공·해군 합동 경계 작전 전술토의**

제3훈련비행단은 9월 3일(화) 기지방호작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헌병대대에서 공·해군 합동 경계 작전 전술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0전비,
조종사 전투수영대회**

제10전투비행단은 8월 30일(금) 조종사 조난상황 시 해상생환능력을 향상시키고 비행대대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환훈련장에서 ACE TEN 조종사 전투수영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전비,
전자부품 회로분석 경연대회**

제11전투비행단은 9월 3일(화)부터 4일(수)까지 전자 회로 이론 및 결함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전자부품 회로분석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15비,
태풍피해 농가 대민지원**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9월 11일(수) 등자리 마을을 방문하여 대민지원을 실시했습니다.



**19전비,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 지원**

제19전투비행단은 8월 30일(금) 충주에서 개최된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개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20전비,
화생방전하 대량전상자 의무지원 훈련**

제20전투비행단은 9월 3일(화) 기지 생존성 향상을 위해 화생방전하 대량전상자 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AF**

공군인의 편지

창군 70주년을 맞이한 공군에게 쓰는 편지

From, 공군사관학교 55교육비행전대 운항관제중대

병장 김정래



To, 공군

먼 곳에서 험험한 눈으로 응시하는 한 마리의 독수리, 공군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남북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영토를 방위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드넓은 영공을 수놓으며 항상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군 조종사, 또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공군 장병, 군무원분들을 바라보면, 동지를 안전하게 지키는 한 마리의 독수리가 떠오릅니다.

동지에 위협이 되는 맹수가 찾아오면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들어올리고, 동지의 알은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독수리는 공군과 많은 점이 닮았습니다. 우리 영공에 위협이 되는 상황마다 재빠르게 출격하는 전투기들과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군 장병, 군무원분들, 재해가 발생하면 재빠르게 지원을 나가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 주민들을 돕는 자랑스러운 우리 공군. 이처럼 우리나라 곳곳에는 수많은 독수리 동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공군이 창설되고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함께한 자랑스러운 우리 공군. 이제 보살핌 받던 동지의 알에서 새로운 독수리가 나오기도 하고, 열심히 동지를 보호하던 독수리는 이제 맘 편히 다음 독수리의 보살핌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군의 일원으로서 보살핌을 받기도 하지만, 나아가 공군을 지원하고 복무로써 소임을 다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70년을 넘어, 100년, 200년과 같이 긴 세월동안 국군과 우리나라 국민 간에 서로가 서로의 일원으로서 보살피고 보살핌 받는다면, 계속해서 안보 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의 전투기나 일본의 정찰기가 우리나라의 동해안 영공을 침범하기도 하였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수차례 있었던 만큼, 더욱더 공군과 우리나라 국민과의 신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군은 안보에 최선을 다해 언제든 날아올 수 있도록 발톱과 부리를 가다듬고, 국민은 이러한 공군에게 관심과 신뢰를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F-35 전투기의 도입과 KC-330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 현 공군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임무능력도 신장된 상태입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영공을 방위하는 우리 공군, 또 영토를 방위하는 자랑스러운 수많은 국군 장병, 군무원분들이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그리고 공군 창군일입니다. 모두 다 같이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과 공군을 떠올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터넷 : moa5819@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지난 70년, 그리고 앞으로의 헌신

From. 제7318부대
일병 김경민



To. 공군

10여 년 전 어느 날, 어린 나이의 한 초등학생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 근처에서 열린 에어쇼를 갑니다. 청량한 가을 하늘을 오색 연막으로 수놓는 전투기들의 모습에 그 아이는 비행기를 좋아하고 하늘을 동경하게 되었으며, 이윽고 공군 조종사가 되겠다는 작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삶에 큰 변화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이는 이근석 장군, 김영환 장군과 같이 공군의 역사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가치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故 김도현 소령님, 박인철 대위님, 오충현 대령님, 김완희 소령님 등 하늘을 지키다 산화한 조종사들의 순직을 통해 눈물 속에서 헌신의 자세를 배웠고, 그 분들이 못 지키는 하늘을 이어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종사가 되진 않았지만, 대학생이 된 그의 마음에 공군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에 한 번뿐인 군 생활을

공군에서 보내겠다는 다짐은 그 누구보다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4월 공군에 입대하게 된 그는 5주간의 고된 훈련 후 전투복에 십 수 년간 열망했던 대한민국 공군 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기억 속 그 분들이 목숨 바쳐 지킨 하늘을 마저 수호하겠다는 다짐으로 매일의 낮과 밤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군은 지난 70년의 세월, 그리고 현재를 통해 제게 헌신을 가르쳐주고 그 기회를 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14년이 흐른 공군이 우리 모두와 함께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공군은 지난 70년간 이름 모를 수많은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달려왔으며, 앞으로의 70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왔던, 또 앞으로의 우리 모두를 지켜 줄 든든한 힘입니다. 모두가 잠든 지금, 우리는 밤하늘 아래 함께하고픈 사람들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군복을 입은 채 묵묵히 하늘을 지킵니다. 오늘도 영공방위임무에 여념 없는 모든 공군인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군 창군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0년 영공의 든든한 수호자 우리 공군에게

From. 공군방공포병학교 작전중대 발사반
일병 정운섭



To. 공군

25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하게 된 나는 어느 군으로 가야 군생활을 보람차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국민의 곁에서 국가의 가장 높은 곳까지 수호하는 공군”이란 말을 듣고 주저 없이 공군에 지원하게 됐다.

사실 공군 병사로 입대하기 전까지는 공군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공군 가족이 되어 공군의 역사와 편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란 말이 그저 허울뿐인 말이 아님을 실감하게 됐다.

우리 공군이 창군부터 평탄한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화려한 비행 경력을 가진 공군 창설의 주역 7인이 대한민국에 “공군”이란 군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군사 훈련 과정부터 다시 수료해야 한다는 고된 길에 앞장서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공군이 존재할 수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것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대한민국 공군은 2019년 창군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우리의 영공을 넘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대한민국 공군이 강한 이유는 뛰어난 무기체계의 덕도 있지만 공군 장병들의 열정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공군방공포병학교에서 교육생들에게 방공포 무기 체계에 대해 가르치고 시범을 보이는 임무를 맡고 있다. 자대배치를 받으면 우리 영공을 수호하게 될 막중한 임무를 가진 이들에게, 무기 체계에 대해 교육한다는 것은 나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가 매 기수마다 교육지원을 들어가면 느끼는 것이 있다. 모든 교육생들이 열정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영공 수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필기하고, 장비를 신중하게 만지는 교육생들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 70년의 역사를 보았다.

교육생들의 열정 못지않게 공군 군사력의 주축이 되는 것은 바로 함께 일하시는 간부님들의 책임감과 열정이다. 매일 아침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훈련 상황도 실전처럼 진지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우리 공군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공군이 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말이다. 혼자 걸으면 발자국에서 그치지만,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의 가치를 가지고 70년 동안 함께 걸어온 우리 장교, 부사관, 병사, 그리고 군무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지금의 강한 공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자명한 사실이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걸어가며 든든한 국방의 길을 펼칠 대한민국 공군에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일념만이 함께할 것이다. AF

책 읽는 공군

장병참여 독후감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

- 실패하는 조직의 특징

메이지 유신부터 2차대전까지, 일본은 그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내부로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초기 발전과 팽창의 원동력이 되었던 정부 조직과 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직, 내분, 퇴보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이 길의 끝에서 일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잿더미가 된 국토, 수많은 인명피해와 제국의 해체였습니다.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에서는 왜 일본이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현대 사회의 기업들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행해야 할 올바른 경영 방침을 제시합니다. 책은 일본 제국 패망을 불러온 주요 전투 6개의 패배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이 패배들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첫째, 당시 일본 제국의 국방부 역할을 했던 '대본영'은 뚜렷한 목적의 대전략을 지니지 않은 채 서방과 전쟁에 돌입했고, 자연히 휘하 부대들도 각각의 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부재는 일본군이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우왕좌왕하여 패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직적이고 경직된 일본군 특유의 조직 문화는 후방 지휘부의 생각과 전선의 현실에 큰 괴리를 만든 것은 물론, 급변하는 전투 상황에 일선의 부대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은 조직의 단결마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는 육군과 해군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군은 분리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 육군과 해군은 각자의 이익만을 따지며 상호 협조하지 않았고, 미군은 손쉽게 분리된 일본군을 각개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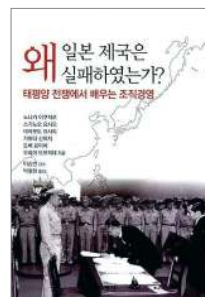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대전략과 목적의 부재, 경직된 체계, 분열되어 협동하지 않는 조직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일본을 패망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책의 저자들은 일본 패전의 책임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일본군 자체

에 있었음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책은 더 나아가 일본 내의 기업 중 아직까지도 일본군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곳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런 조직들은 일본군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는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 내부의 조화로운 단결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니는 조직만이 성공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의 부재가 일본 제국의 실패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결과를 도출해내며 책을 끝맺습니다.

비록 이 책은 일본 제국의 실패를 비탕으로 올바른 기업 경영 방식에 대해 논했지만, 이 실패의 공식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비단 기업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크기는 정부, 군, 기업의 수뇌에서부터 작게는 자신이 소속한 하나의 사무실, 부대, 동아리의 운영에도 위의 조직 실패 공식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본인이 몸담고 있는 많은 조직 중 어떤 조직이 일본군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는지, 또 어떤 조직이 좋은 운영으로 성공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지를 알고, 조직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
항공지원작전단
병장 홍석주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

노나카 이쿠지로 등 7인 지음
주영사

사람, 장소, 환대

- 사람됨을 넘어 사람대접을 생각하다

‘사람이 되다’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는 생물학적 인간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됴됨이를 의미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된 사람’인지 ‘못 되어먹은’ 사람인지를 판단한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은 후자의 관점에서 어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아 비로소 사람이 되는지를 추적한다.

책은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소설의 주인공은 우연히 악마를 마주치는데, 자신의 그림자를 탐내던 악마에게 그림자를 내주고 대신 끝없이 금이 나오는 자루와 맞바꾼다. 덕분에 주인공은 호화를 누리지만 정작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어쩌면 사람의 당연한 본질 중의 하나인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것만으로 낙인이 찍혀(stigmatized) 사회에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책의 비유로는 ‘정상적인 인간’의 필수 요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코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림자 외에 사후의 영혼까지 빼앗으려던 악마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주인공은 금자루마저 포기하고, 대신 우연히 발견한 한 걸음에 칠십 리를 가는 장화를 얻어 사회의 한 걸음 밖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다 생을 마감한다.

제목의 세 단어는 얼핏 보아서는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책장을 펴면 세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다. 문장으로 엮어 요약하자면 타인의 ‘환대’에 의해 사회라는 ‘장소’ 안에 들어가 그곳의 성원권을 얻어 비로소 ‘사람’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는 환대를 잃고 장소를 벗어나 사회 속에서의 마지막까지 사람대접을 되찾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 도덕적 성찰도 필요하지만, 사회 속의 의례와 상호작용을 보고 누가 어떻게 사람으로 대접받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인종차별, 노예제, 장애나 질병에 대한 공포를 비롯한 역사의 이면에서 사람대접의 배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훑아보고, 한편으로는 범죄자의 사회적 성원권과 같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사람, 장소, 환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만 사람됨을 넘어 ‘사람대접’을 생각해 보자는 발상의 제안이다. 나 자신이 사회에서 적절한 성원권을 부여받고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환대를 제공해주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꼭지가 되기도 한다. 당신은 어떤 환대에 의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적절한 환대를 제공하고 그를 사회 속에서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책은 공군인 여러분에게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하는 물음을 던져줄 것이다. AF



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정훈과
병장 양지우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우주의 이해



UNDERSTANDING THE SPACE

우주인 - II

우주인의 우주공간 삼시세끼

유인 우주탐사를 위해 우주인이 직접 우주공간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우주공간에서 인간이 지낼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번호에서는 우주인이 우주에서 지낼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먹는지 알아보자.

우주공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960년대 우주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미국은 우주인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우주인들은 유인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온 후 심장박동수 증가와 체중감소 증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증상은 실제 우주 비행시간보다, 우주복을 착용한 시간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압 우주복 착용에 의한 우주인의 스트레스가 요인인 것이다. 압력이 가해진 상태의 우주복은 마치 돌처럼 딱딱해서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또한,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들은 기저귀를 통해 소변을 해결하는데, 이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아예 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 음료 섭취를 줄였다.



출처 : NASA

우주공간에서의 인체생리

- 우주공간에서 피를 흘리면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피가 동그랗게 맺힌다.
- 우주에서는 척추 뼈마디 사이가 벌어져 키가 2~5cm 늘어난다. 그러나 근육은 늘어나지 않아 근육이 당기는 통증이 생긴다.
- 뼈의 밀도가 저하된다. 3~4개월 우주에서 생활하고 지구로 귀환하면 뼈 밀도가 정상화되기까지 2~3년이 걸린다.
- 근육이 줄어들고 약해진다. 미세중력에서 근육운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인체의 큰 근육에서부터 심장 근육까지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인은 매일 근육운동을 해야 한다.
- 혈액이 인체 안에서 고르게 퍼져 얼굴이 부어오른다.
- 우주유영 중에 구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주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토한 액체를 닦아낼 수 없기에 기도로 들어가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 우주선 선실 안의 공기압의 변화에 따라 귀가 멍해진다. 우주인의 유영 전 우주복 내부의 압력에 맞춰 선실의 압력도 줄이기 때문에 이때, 귀가 멍해지는 현상이 있다.
-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환경 때문에 정신적 피로가 심해져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감퇴를 일으킬 수 있다.
- 우주공간에서 병이 걸리면 막대한 예산의 우주임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없는 우주선 안에서의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주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주에서의 생활

수백°C에 달하는 온도차,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우주물체, 우주방사선 등 많은 위험요인이 있는 곳, 가히 극한의 공간에서도 나름 재미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지구 중력 백만분의 일정도의 미세중력이 작용하는 우주정거장에서는 물체의 무게를 느낄 수 없으며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물체는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특수한 용도의 덧신이나 손잡이 등을 이용해야만 몸을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혈액도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쉽게 순환되어 얼굴이 붓고 장기들이 위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인체 내에 있는 모든 것이 부유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지상보다 더 크며 무중력 상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뼈에서 칼슘이, 근육에서 질소가 빠져나간다. 따라서 우주인들에게 지속적인 체력운동과 영양이 있는 식단은 필수적이다.



〈우주정거장에서의 우주인〉, 출처 : NASA



〈우주에서 머리감기〉, 출처 : NASA

우주인의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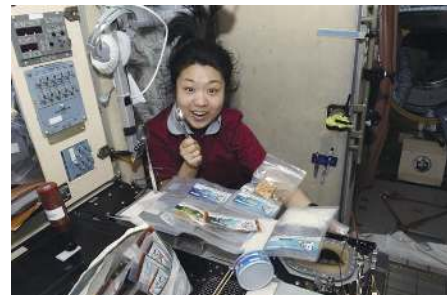
신체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우주생활에서 먹거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주에는 중력이 거의 없고 우주식은 이러한 환경에서 우주인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므로 일반식과 다른 점이 많다. 근육과 뼈에 영양분 손실이 많은 우주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칼슘과 칼륨이 포함된 고영양의 음식이 많다. 우주에서 식사를 할 때 중요한 철칙이 있다면 ‘천천히’ 먹는 것이다. 서둘러 먹다가 음식이 사방으로 흩날리면 청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당에는 음식 찌꺼기를 빨아들이는 청소 장비가 있지만, 미세한 찌꺼기들이 우주선에 붙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AF**

〈우주식량이 갖춰야할 특성〉

- 건조, 진공포장 | 우주공간은 보급을 자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간 먹을 수 있도록 건조, 진공포장을 한다.
- 국물과 날리는 음식은 X | 국물이나 가루가 날리는 음식은 우주선 내를 떠돌다가 기계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피되고, 멸균과정을 거친다.
- 고영양 | 우주 생활은 몸의 영양소 손실이 많기 때문에 칼슘과 칼륨 등을 보충하기 위해 고영양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우주식량〉, 출처 : NASA



〈우주정거장에서 식사 중인 이소연 박사〉,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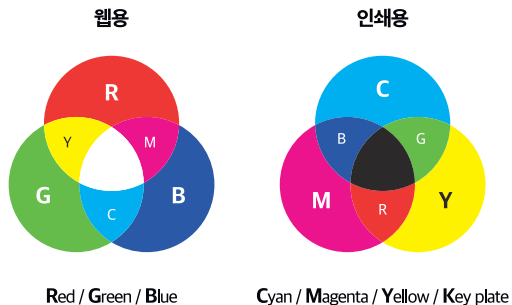


생활 타이포그래피 하기 쉬운 실수_인쇄편

이번에는 디자인 작업을 인쇄할 때 하기 쉬운 실수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컴퓨터로 열심히 작업을 해놓고도 인쇄 과정의 실수로 결과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쇄는 역사가 깊고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이번에 다룰 몇가지만 숙지하면 초보적인 인쇄사고는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1. RGB와 CMYK를 구분하지 않는다.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크게 RGB방식과 CMYK방식이 있습니다. RGB는 빛의 삼원색의 원리인 '가산혼합'의 방식을 따릅니다. 다양한 색이 모일수록 하얀색으로 보이는 방식입니다. CMYK는 색의 삼원색의 원리인 '감산혼합'의 방식을 따릅니다. 미술시간에 다양한 색의 물감을 섞을수록 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RGB는 빛의 삼원색 Red, Green, Blue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며, CMYK는 색의 삼원색 Cyan, Magenta, Yellow와 먹색 Key Plate의 앞글자를 딴 이름입니다.



컴퓨터 화면, 핸드폰 화면과 같은 디지털 화면은 빛으로 색을 표현하기에 RGB방식으로 색상을 구현합니다. 한편 책, 포스터와 같은 인쇄물은 CMYK방식으로 색상을 구현합니다.

따라서, 인쇄할 필요 없이 디지털로 활용할 작업물은 RGB로 작업해야 하며, 인쇄를 하는 경우에는 CMYK로 작업해야 합니다.

CMYK모드는 RGB모드에 비해 구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RGB모드로 작업한 것을 인쇄하면 모니터로 보는 색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CMYK로 작업을 하더라도 화면과 프린터의 차이로 색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RGB로 작업하는 경우보다는 그 차이가 적습니다.

RGB에서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CMYK에서는 불가능한 대표적 색깔은 형광색입니다. 컴퓨터에서 RGB로 형광색이 들어간 디자인을 하였다면 그것을 인쇄해봤자 형광빛이 빠진 색으로 인쇄될 것입니다. 인쇄물에 형광색을 표현하고 싶다면 인쇄소에 별색인쇄를 의뢰해야 합니다.



형광 별색 인쇄의 예시

간혹 1도 인쇄, 2도 인쇄와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도수는 인쇄에 사용된 잉크판의 갯수를 의미합니다. C, M, Y, K 중에(별색까지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므로 별색은 논외로 합니다.) 한 가지 잉크판만 사용하여 인쇄하는 것은 1도 인쇄, 두 가지 잉크판을 사용하면 2도 인쇄, 세 가지는 3도 인쇄, 네 가지는 4도 인쇄입니다. 1도 인쇄는 한 가지 잉크판만 사용하기 때문에 C, M, Y, K 중 한 가지 색의 농도로만 인쇄되며 흔히 보는 흑백 인쇄가 1도 인쇄입니다. 2도 인쇄는 보통 K에 C나 M이나 Y를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그림 없이 글이나 그래프, 도표 등으로만 이루어진 인쇄물에 주로 쓰입니다. 책의 내지나 참고서 등에서는 주로 2도 인쇄를 사용합니다. 3도 인쇄는 보통 K에 C, M, Y 중 두 가지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4도 인쇄는 C, M, Y, K를

모두 사용하는 컬러인쇄를 의미합니다. 도수가 높아질수록 인쇄 단계가 많아지므로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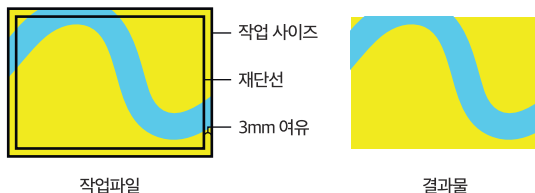
실수2. 출력 해상도를 확인하지 않는다.

디자인물에서는 출력 해상도를 크게 72ppi와 300ppi를 사용합니다. ppi는 pixel per inch의 약자로서 1인치에 몇개의 픽셀이 들어가는지 나타내는 단위이며 숫자가 높을 수록 더 크게 확대하더라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웹의 ppi 규격은 72ppi이며, 인쇄의 경우 300ppi입니다. 이미지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웹은 72ppi, 인쇄는 300ppi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디지털에서 활용할 작업물은 72ppi, 인쇄할 용도의 경우는 300ppi로 작업하면 됩니다.

실수3. 재단선 밖으로 여유를 두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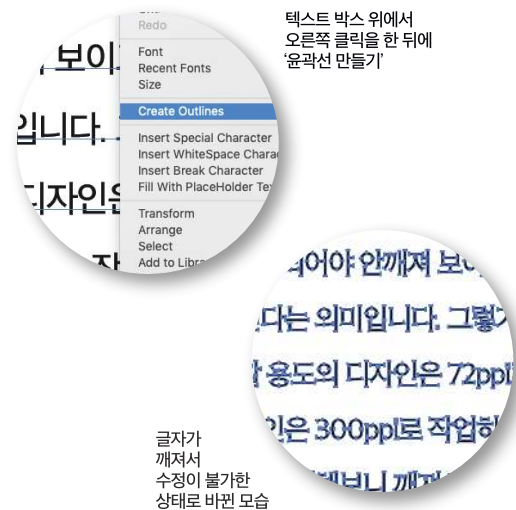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인쇄소에 맡길 때는 반드시 재단선 밖으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명함, 리플릿, 포스터, 책, 무엇이든 말이죠. 가령 배경이 검정색이고 가로 90mm에 세로 50mm인 명함을 인쇄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인쇄소에서는 90mm*50mm 사이즈의 종이에 명함을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 사이즈의 종이에 명함 수십 수백 개를 인쇄한 다음 90mm*50mm 사이즈로 각각 칼로 재단해서 명함을 만듭니다. 만약 90mm*50mm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칼이 1mm라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명함 가장자리에 흰줄이 생깁니다. 디자인의 배경은 검정색인데 종이는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작업물에 배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 후의 사이즈보다 사방 3mm 이상 넘어가게 작업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재단선 도련'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4. 글자 깨기윤곽선 만들기를 하지 않는다.

텍스트를 그 모습 그대로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을 '윤곽선 만들기'라고 하며, 이를 흔히 '글자를 깬다'고 표현합니다. 디자인 작업을 한 다음에 인쇄소에 파일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텍스트에 '윤곽선 만들기(글자 깨기)'를 해서 보내야 합니다. 텍스트에 사용된 폰트가 인쇄소에 없을 경우, 다른 폰트로 대체되어 인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보내기 전에 모든 글자는 윤곽선 만들기(글자 깨기)를 하여, 수정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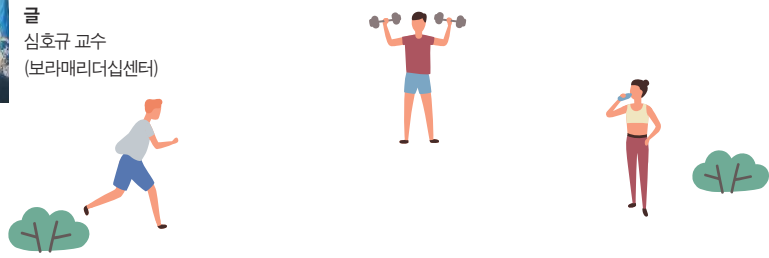
실수5. 시험 인쇄를 하지 않는다.

인쇄소에 맡기기 전에 자신이 직접 시험 인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집이나 인쇄소에서 자신이 직접 인쇄할 경우에도 시험 인쇄를 하는 여유를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시험 인쇄를 해야 인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CMYK로 작업을 했어도 화면과 인쇄물 간의 색상 차이가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화면에서는 안보였는데 인쇄를 하니 갑자기 보이는 것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는 적절한 크기의 글자라 생각했는데 인쇄를 해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적절한 글자 크기는 인쇄 경험이 많아야 감이 생깁니다. 따라서 본 인쇄를 하기 전에는 꼭 시험 인쇄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F



글
심호규 교수
(보라매리더십센터)



하는 특징적인 양식으로서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안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 방식의 총체이다. 성격이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격은 신체적, 지적, 흥미를 포함한 개인의 독특한 특성의 유형이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성격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행동양식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비교적 일관된 행동반응양식을 보인다. 따라서 행동반응양식은 안정성이 있고, 비교적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의 행동반응양식이 때와 장소에 따라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변한다면 이는 성격의 특성이라 볼 수 없다. 셋째, 성격은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병사들이 실시하는 「신인성검사 2.0」 중 「군생활적응검사-적응성격 영역」에는 자신의 성격특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적응성격 영역은 Holland(1985)의 직업관련 성격과 흥미를 RIASEC코드로 나타내고 있는데, 민간 Holland검사와 명칭이 달라 다음 표로 정리하여 놓았다. 신인성검사 이외에도 워크넷(www.work.go.kr),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 직업성격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을 통하여 MBTI와 같은 성격검사와 해석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인간은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같은 낮선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낯설고 불편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인간의 행동양식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성격(personality)의 사전적 정의는 '각 개인이 지닌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이다. 성격은 개인이 환경에 따라 반응

Holland 검사	군생활적응검사	특징
현장형 (R; Realistic)	강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적으로 강인하며 야전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에 잘 적응 • 장비 제작 및 수리/정비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탐구형 (I; Investigative)	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일, 혼자서 해결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기획, 작전 관련 분야의 역할수행에 강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예술형 (A; Artistic)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적 임무 수행 환경에서 능력을 잘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
사회형 (S; Social)	배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나 후임병을 지원하거나 보살피며, 다른 병사들에게 군에서 필요한 능력을 알려주거나 돕는 것을 선호 • 복지, 지원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진취형 (E; Enterprising)	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대장과 같은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업무를 할당하고, 조정하는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사무형 (C; Conventional)	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절차나 순서를 관리하는 역량 보유 • 정확성이 요구되는 관련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 표 「Holland 검사」의 RIASEC코드와 「군생활적응검사」의 적응성격영역 특징



「Holland 검사」의 RIASEC코드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㉓ 현장형(R; Realistic)

현장형은 기계적 소질이 있는 반면에 사교 능력이 부족하고 물질 지향적, 구체적, 실용적이며, 기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선호한다. 사교능력이 부족하다보니 현장형 사람들은 가끔 자신에 대해서나 자신의 감정에 관하여 타인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현장에서 직접 신체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기계를 조작하는 직업을 선호한다.

㉔ 탐구형(I; Investigative)

과학자 직업을 가진 지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유형이다. 탐구형은 사람보다는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높고 추상적인 지능의 소유자이다. 사회적인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서적인 상황에서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탐구형 직업은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곳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탐구형 직업이 현장형 직업과 다른 점은 현장형 직업이 물건을 만드는 기계나 도구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는 반면, 탐구형 직업은 데이터나 정보를 산출하는 기계나 측정도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㉕ 예술형(A; Artistic)

예술형의 사람들은 창의성을 지향하며, 아이디어와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한다. 예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좋아하고 작가나 음악가, 연극인과 같은 예술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형 직업과 관련된 업무는 종종 글, 음악 또는 기타 예술적인 방법으로 예술품을 창작하는 것과 연관된 활동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예술형이라고 예술능력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성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㉖ 사회형(S; Social)

사회형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체로 협동적이며 친절하고 휴머니스트이며 사교성과

재치가 있는 편이다. 사회형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 필요한 환경, 즉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치료하는 직업 또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다. 사회형과 연관된 직업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돌보고 이끌고 계도하는 것, 그리고 교육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㉗ 진취형(E; Enterprising)

진취형은 물질이나 아이디어보다는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업가적인 기질이 강한 진취형은 특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관심이 있다. 진취형은 각 개인의 지위와 위치가 분명하고, 권위나 권력의 위계가 잘 구조화된 체계에서 편안하게 일을 한다. 진취형은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지도, 통제 및 설득하는 곳에서의 활동을 선호한다. 진취형 직업은 다른 사람이나와 같은 견해를 갖도록 설득하는 일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업무에는 각종 영업, 정치활동, 지도자 업무, 회사중역 업무 등이 포함된다.

㉘ 사무형(C; Conventional)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잘 짜여진 구조에서 일을 잘하고, 세밀하고 꼼꼼한 일에 능숙하며, 정확하고 수리적인 과제를 잘 처리해낼 수 있다. 사무형은 일의 목표나 수단이 명백하게 제시되는 구조화된 상황에서 가장 일을 잘한다. 사무직처럼 세부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같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과 관련이 있다. 사무형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며, 규칙적인 업무 시간과 편안하게 실내에서 하는 일을 선호한다. 사무형은 대기업 같은 큰 조직에 잘 적응하지만,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잘 조직화된 명령 체계 아래에서 일하기를 좋아한다. 성격은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다. 그러나 모두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특정한 성격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 개선과 환경 적응을 위해서는 먼저 검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와 다른 성격을 존중해 나가야 한다. AF



독서의 계절, 책 '제대로' 읽고 있나요?

첫 독자의 편집후기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지음 | 책구루 펴냄
344쪽 | 16,500원

지난해 5월 출간돼 올해 상반기까지 근 1년간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 10위권에 빠지지 않고 올랐던 독서법 책이 있다. 독서법 책이 이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도, 이렇게 장기간 높은 순위를 유지한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다. 강남 대치동에서 13년째 독서 논술 교육에 몸담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의 책 『공부머리 독서법』이 바로 이 이례적인 독서법 열풍의 주인공이다.

저자는 책에서 특히 '지식도서'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지식도서란 동화나 소설과 같은 순수 창작물이 아닌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다. 지식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단편적인 지식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연결돼있지 않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는 깊이 있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다.



저자 최승필

그저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 도서를 읽는 방법은 따로 있다. 읽는 과정에서 '지식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 '지식 블록'이란 어떤 지식에 대해 '왜?'라고 질문하며 꼬리를 물어 원인을 찾아 나갈 때 형성된다. 예를 들어 '지구는 둥글다'라는 정보를 접하면 '왜?'라고 질문하며 해당 지식에 대한 원인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 읽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는 '지구는 불덩어리 용암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지구의 중심부로부터 동일한 세기의 만유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덩어리 용암이 용암 구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지식이 하나의 '지식 블록'이다.

'지식 블록'은 또 다른 '지식 블록'을 만들며 결국에는 울창한 '지식의 숲'을 이룬다. 예를 들어 앞서 예로 들었던 질문 과정에서 '지구는 왜 불덩어리로 태어났을까?', '만유인력이란 무엇인



가?’ 등의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다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다 보면 추후에는 지구를 넘어 소행성과 별뚝별이 생기는 원인을 지나, 항성의 생성 원리와 항성풍을 이해하는 등 머릿속에 ‘천체의 생성’이라는 ‘지식의 숲’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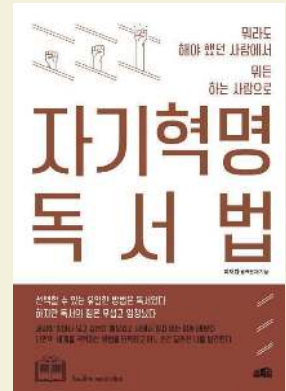
깊고 넓은 ‘지식의 숲’을 갖는 것만이 지식도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아니다. ‘지식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몸으로 체화해야 할 단 하나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지식은 원인과 결과의 쌍으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에 ‘왜?’라고 물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독서 초보자라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지식도서를 읽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저자는 아무리 어려운 도서더라도 읽을 수 있는 법을 소개한다. 준비물은 연필이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연필을 들고 표시하며 읽는다. 이때 표시할 것은 모르는 단어, 이해가 안 되는 문장, 핵심 문장이다. 책 여백에 궁금한 점이나 문단의 핵심 내용을 메모해도 좋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연필로 표시한 부분에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찾아보며 읽는다.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꼼꼼하게 다시 정독한다. 이때 각 문단의 맨 첫 문장을 세 번 정도 정독하거나 필사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속도가 빨라져서는 안 된다. 저자는 국어교사 출신 독서 전문가 하시모토 다케시가 베스트셀러 『슬로리딩』에서 증명한 ‘느리게 읽기’의 효과를 언급하며 “독서의 효과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책 속에 담긴 논리와 정보, 작가의 의도를 충실히 파악해내면서 읽으면 단 한 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책 한 권을 통해 할 수 있는 사고의 극대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반대로 기본 줄거리조차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대충 읽으면 사고의 양이 아주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백 권, 천 권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며 “제아무리 석탄 매장량이 많은 탄광이라도 갱도를 파지 않으면 단 한 톨의 석탄도 캐낼 수 없듯이 곁핥기식 독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근 1년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독서법 책의 역사를 쓴 공부머리 독서법.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효과를 봤다는 방증이라. 독서의 계절, 무작정 책을 읽기보다는 ‘체대로’ 읽어보자. **AF**

01.



『자기혁명 독서법』

이재범 지음 | 프레니미 퍼냄
296쪽 | 15,800원

02.



『1시간에 1권 퀴텀독서법』

김병완 지음 | 창림출판 퍼냄
280쪽 | 15,000원

01. ‘핑크팬더’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저자는 20여 년 동안 2,000여 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과 재테크 모두 성공한 투자 전문가로 성장했고, 여러 투자 카페와 사이트에 칼럼을 기고하게 됐다. 1부와 2부에서는 어떻게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지, 독서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소개한다. 3부에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독서라는 주제로 저자가 만든 ‘자기혁명 독서법’을 소개한다.

02. 읽고 싶은 책은 많지만 다 읽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언제까지 책을 한 자씩 읽을 것인가? 우리의 눈과 뇌는 한 자씩 읽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1줄씩, 이후에는 10줄씩, 마지막에는 1페이지씩 읽을 수 있게 진화해온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눈과 뇌라고 말하며 책은 눈이 아니라 뇌로 읽는 것이라 강조한다. 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뇌를 왜곡해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소개한다.

—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군인에게 명예는 왜 중요한가?
 - '모든 사람에게 맞선 한 사람' 윈스턴 처칠의 용기



— 글·사진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군인에게 명예는 왜 중요한가? ‘모든 사람에게 맞선 한 사람’ 윈스턴 처칠의 용기

“지금은 평화가 최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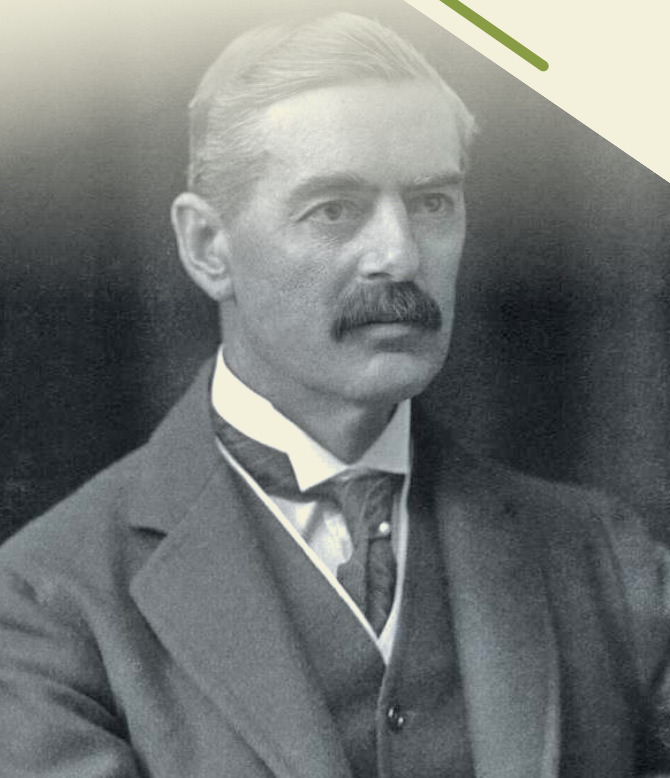
체임벌린(J.A.Chamberlain, 1869~1940) 총리는 현실적이었다. 그는 히틀러(A.Hitler, 1889~1945)에 맞서려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영국은 싸움을 할 돈이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나라창고가 텅 빈 상황, 또 한 번 전쟁을 치렀다간 대영제국 자체가 결판날 판이었다. 게다가 히틀러는 영국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주데텐란트, 단치히 등의 중부와 동부 유럽 지방만 바라는 듯 했다. 이 지역은 영국과 별 상관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독일 입장에서 중재를 서 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 떠오르는 히틀러의 비위를 거슬러 좋을 일이 뭐 있겠는가. 같은 편이라는 인상만 주어도 '우리 시대 동안은 영국

이 독일과 으르렁거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 히틀러가 욕심을 더 내어 러시아까지 쳐들어간다면? 이 또한 영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두 나라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 서로 국력이 바닥날 터, 유럽에서 영국에 견줄만한 강력한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꼴이다. 나아가, 히틀러와 맞선다 해도 영국이 힘을 합칠 '동맹국가'가 있기는 한가? 멀리 떨어진 미국은 유럽 사정에 관심이 없었고, 프랑스도 영국만큼이나 지친 상태다. 나머지는 힘을 빌리기도 뭉한 고만고만한 나라들뿐이다. 그러니 영국은 히틀러와 싸우지 말아야 한다. 눈을 질끈 감고 그가 저지르는 횡포를 외면해 버리자. 지금은 평화가 최고대!

“처칠, 모든 사람에게 맞선 한 사람”

사실, 체임벌린의 논리에는 틀린 부분이 없었다. 영국 사람들 대부분도 총리와 생각이 같았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은 달랐다. 그는 즐기차게 히틀러와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처칠은 “모든 사람에게 맞선 한 사람”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처칠을 싫어했다. 왜 저 늙은이는 세상물정을 모른단 말인가? 그럼에도 처칠은 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을까? 처칠은 독일이 아닌 히틀러를 눈여겨보았다. 히틀러는 인종을 잣대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독일 민족이 더 강하고 우수해지기 위해 약한 민족들을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인류의 전염병'과도 같은 유대인들은 아예 없애 버려야 한다고 믿었다. 처칠은 명문 귀족이었다. 그의 가슴은 항상 '역사의 사명을 걸머진 고귀한 인간'이라는 명예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이익과 손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항상 정의로운지 아닌지부터 가려려 한다. 처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에게 히틀러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 상대가 될 수 없었다. 1940년 5월 13일,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유명한 총리 취임 연설에서 처칠은 단호하게 외쳤다. “이번 전쟁은 더 할 나위 없는 괴물 독재에 맞서는 것”이며,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하는 것”이다. 처칠에게는 악마와 타협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었다.

◀ 제41대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





“다 걸기의 명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처칠의 생각이 옳았음을 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엇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가 뚜렷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기 마련이다. 죽기 살기로 싸우기보다는 타협과 화해를 바라는 이들이 더 많다.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처칠은 불도그와 같았다. 한 번 물면 떨어지지 않았고, 내치면 더 맹렬하게 달려들었다는 뜻이다.

수상이 된 처칠은 모든 국력을 전쟁에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전쟁을 시작할 무렵 변변한 무기도 없던 상태에서 순식간에 완전 무장한 29개 사단을 갖추게 되었다. 비행장과 항구도 최신형 전투기와 전함들로 가득 찼다. 그 결과 영국 경제는 삼시간에 부도가 나 버렸다. 체임벌린이 걱정했던 그대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처칠은 이런 상황을 되레 무기로 써 먹었다. 당시 영국은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한 나치 독일 일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영국 경제가 쓰러질 지경이 되자, 미국도 더 이상 낫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그동안 미국이 영국에 쏟아 부었던 온갖 투자와 도움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탓이다. 처칠은 ‘다 걸기의 명수’였다. 싸우기로 결심하면 멈칫거리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히틀러의 군대가 가장 강했던 1939년에서 1941년 사이, 처칠은 인류를 구원한 ‘운명의 남자’였다. 그가 아니었다면 전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유럽은 나치가, 아시아는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차지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사는 ‘옳음’에 예민해야 한다.”

한일합방의 상황에서 친일파들은 자기를 판단이 ‘합리적’이라 여겼다. 어차피 망할 나라, 피 흘려서 뭐하겠는가. 친일파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일본제국 안에서 빌붙어 살아가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라 여겼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는 일제 강점기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익과 손해를 잣대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이익은 독(毒)에 지나지 않는다. 사악한 자가 착해지는 경우는 나를 이용하려 할 때뿐이다. 처칠은 타고난 전사였다. 학교에서 열등생이어서 ‘가문의 수치’

로 여겨지던 스무살 처칠은 전쟁을 통해 인생을 뒤집었다. 스물다섯 살까지 그는 기병 장교로 쿠바와 수단,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이나 전쟁에 자원하여 뛰어들었다. 특히, 보어 전쟁에서 그가 보여준 용맹은 남달랐다. 중군 기지였음에도 혼란에 빠진 병력을 지휘해 적의 탈취한 기관차를 다시 빼앗았고, 남은 열차 칸까지 다시 손에 넣으려다 포로로 잡혔다. 목숨을 걸고 탈출해 사막을 건너 귀환했으며, 곧바로 장교로 복귀해 전쟁터로 나섰다. 이런 처칠의 모습은 열패감에 사로잡혔던 영국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 올렸다. 그의 전기를 쓴 제바스티안 하프너(Sebastian Haffner, 1907~1999)는 이렇게 말한다.

“젊은 처칠은.....지배, 명령, 질서, 통치 등을 조종, 결합, 음모 꾸미기보다 더 잘했다..... 게다가 그 영역이 전쟁 분야라면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을 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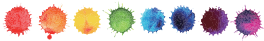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누구나 다 사람 좋아 보인다. 반면, 춥고 배고픈 처지에 놓이면 그가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은 누가 고귀한 영혼을 갖추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 그대는 최악의 상황에서 처칠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군인인가? 전사는 ‘옳음’에 예민해야 한다. 명예를 생명으로 여겼던 ‘군인’ 처칠의 삶에서 교훈을 얻을 일이다. AF



글
중위 윤기준
(정훈과)



일러스트
이한아
(일러스트 작가)

생각하는 그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한 방에서 특이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는 10만 원을 받고 돈을 받지 않은 B에게 10만 원 중 일부를 나눠줘야 합니다. B에게 주고 남은 돈은 모두 A가 가지게 됩니다. 상대에게 얼마를 줄지는 오로지 A의 선택에 달렸지만, 만약 상대가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A 역시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A가 받은 돈이니 A가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면서도, 공정하게 반반 나눠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너무 적다며 거절할 경우 자신도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게임은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로 노벨상까지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이 고안한 '최후통첩 게임'으로, 실험 결과 사람들은 금액에 상관 없이 평균적으로 받은 돈의 40%를 상대에게 제안한다고 합니다.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평균 4만 원을 제안하지만, 반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만 5천 원 이상이면 돈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자신과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주는 것이 이득이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카너먼 교수는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득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정성과 상호 이득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당하면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가능한 부당하지 않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개인의 이기심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재자 게임’이 추가적으로 고안되었는데, 독재자 게임의 규칙은 최후통첩 게임과 유사하지만 돈을 받는 사람은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독재자 게임에서 돈을 주는 입장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1원만 주고 모든 돈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험결과 사람들은 평균 28%의 돈(한국의 경우 2만 8천원)을 상대방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손해를 볼 위험이 없어도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돈 외에 모든 말,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통첩 게임에서 처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독재자 게임처럼 내가 모든 통제권을 가졌다고 해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입니다. 두 게임에서처럼 내 말과 행동 이전에 상대방의 심리를 고려하는 자세만 갖춘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 올바른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AF



● 기준의 기준 휴가를 '나가'지 않을 수 있다면

‘휴가를 간다.’ ‘휴가 떠난다.’ 분명 가슴 설레는 말이다.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는 병사들에게는 특히 더욱 각별한 말일 것이다. 그런데 병사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휴가 간다.’ ‘휴가 떠난다.’라는 표현보다 ‘휴가 나간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번 유심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다. 휴가는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데도 ‘휴가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특이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군인 밖에 없다.

‘모자를’, ‘바지를’, ‘목도리를’ 한국 사람이라면 뒤에 어떤 단어가 올지 단번에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모자를 매다’, ‘바지를 매다’, ‘목도리를 쓰다’라는 뜻은 알겠지만 조금 이상하다. 한국어가 서툰 영어권 외국인이라면 이상한 걸 알기 어렵다. 영어로는 모자도, 바지도, 목도리도 ‘Put on’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다’, ‘입다’, ‘매다’가 똑같은 의미로 느껴지는 것이다.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의미의 차이다.

이처럼 긴밀한 결합을 이루는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언어 관계’라고 한다. 이런 언어 관계의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언어 덩어리를 한 번에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쓰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자를 쓰다.’라는 하나의 구 안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보통 ‘휴가’라는 단어엔 ‘가다’를 결합해서 쓴다. ‘가다’는 한국인이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이며 무수히 많은 단어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단어와 결합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진다. ‘병원에 가다.’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진료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장가가다.’는 결혼의 의미로 사용된다.

‘가다’와 자주 결합해 사용되는 단어가 또 있는데, 바로 ‘군대’다. ‘군대 가다.’도 다른 언어 관계처럼 결합하면서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군대 가다.’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이다. 어쩌면 ‘군대 가다.’의 ‘가다’는 기대되고 설레는 ‘휴가 가다.’와는 정반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많은 성인 남성이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낼 생각에 눈가를 적시기도

하고, 아직 군입대를 하지 않은 남성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김광석이 부른 ‘이등병의 편지’의 가사를 살펴보면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군대 간다.’는 것은 사회와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친구들과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일까. 군인들은 휴가를 ‘나간다.’ 군대에는 ‘가고, 휴가는 마치 답답한 우리에서 탈출하듯 ‘나가’는 것이다. 훈련소에서는 ‘휴가 나가서 할 일’을 공책에 적어놓는 동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로 12주의 기본군사훈련 중 2박 3일의 외박을 기다리며 공책에 휴가 버킷리스트를 적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다. ‘공원에서 산책하기’, ‘샤워하면서 노래듣기’, ‘탕수육 먹기’ 등 평소라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훈련소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이처럼 휴가를 ‘나간다.’는 것은 억압된 생활에서 만끽하는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군인들은 휴가 ‘나가’길 기다리고, 부모님과 여자친구는 아들, 남자친구가 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언어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굳어진다. 언어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모자를 입지 않고 쓰는 이유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군인들의 휴가도 마찬가지다. 군인들이 휴가를 가기보다 나가는 것은 많은 군인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군대는 ‘갈혀 있는 곳’의 대명사였고 대부분의 군인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휴가 나간다.’라는 표현이 굳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병영문화가 계속 변하다보면 언젠가 병사들이 ‘휴가 나간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여행을 떠나면 즐겁다가도 집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부대를 집처럼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상상일 뿐이다. 하지만 자율적이고 개방된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금의 병영을 보고 있으면 그 상상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든다. 

‘기준’이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오른쪽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2019
10
4 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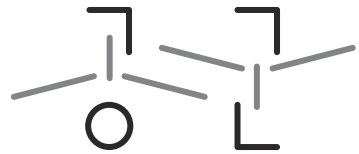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도로명 주소: _____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2019년 공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



기 간

'19. 10. 28.(월)
 ~ 11. 1.(금) / 1주간

참가부대

공군 전 부대

훈련중점

- 공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집중기간으로 운영
- 부대/지역별 환경 및 특성 고려 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훈련 숙달
- 현장 중심 초기대응 훈련 강화(행동화 체득)
- 유관기관·지자체 등과 협업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 실시

주요 훈련일정

일자	10.28(월)	10.29(화)	10.30(수)	10.31(목)	11.1(금)
훈련내용	비상소집 및 상황조치 훈련	-	지진 대피 훈련	-	불시 메시지 훈련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익히기 교육				
	각 부대별 자체 재난대응훈련(민·관·군 합동훈련) * 항공기 사고, 지진, 산불, 화재(다중밀집시설),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Multipl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a letter or message.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9
10
4 9 6

월간 『공군』은 인터넷으로 열람·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 : www.afzine.co.kr



마감일 : 10월 31일까지



<엽서를 보내주세요!>

가장 좋았던 원고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에게, 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제 월간 『공군』 엽서를 보내보세요.
위의 엽서에 쓰고, 자르고, 부치면 끝!

월간 『공군』 편집실 연락처

인터넷(E-mail) moa5819@af.mil
인터넷(E-mail) afzine@korea.kr
전화번호 042-552-6943

채택된 엽서는
오른쪽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기념품’도 보내드립니다!

포간첩·테러범, 군사기밀 유출, 외국(軍)방산 스파이, 보안사고(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37
언제 어디서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p>신고유형 포간첩/테러범·보안사고(위반) 외국(軍)방산 스파이·군사기밀유출</p>	<p>상금내역 간첩선·간첩 :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억원</p>	<p>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sc.mil.kr</p>
--	---	--



「마음의 소리」



박지현 (대구시 달서구)

오빠가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8월호 공군 신병들과의 좌담회 기사를 보니 나라를 지키는 일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과 훈련을 통한 자기 성장 등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심되고 믿음이 가서 오빠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우리 오빠 같은 사람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군생활을 미리 알려주셔서 좋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화이팅!

편집실 독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편집실 이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다고 하니 무척 뿌듯하네요. 오빠를 생각해주는 독자님의 마음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월간 『공군』을 통해 군생활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정현 (전남 순천시)

사랑하는 막내아들이 진주에 있는 공군부대에 입소했어요. 지금 제 카톡프로필에는 공군 입소사진, OT사진, 첫 휴가 사진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활짝 웃는 모습이 예쁜 아들 사진을 보고 제 친구들, 지인들이 “공군이 되더니 더욱 멋지고 밝아졌다.”며 “역시 공군이 최고야!”라고 하네요. 유빈아! 더욱더 열심히 공군의 1인으로서 최선을 다해다오. 사랑한다 아들^^

편집실 공군의 일원이 된 아드님과 독자님을 환영합니다! 아드님의 입대로 공군에 더 많은 관심도 생기셨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월간 『공군』이 독자님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역시 월간 『공군』이 최고야!”라는 말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애 (충북 음성군)

‘공군인의 마음건강 - 다이어트, 살과의 전쟁’ 기사를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특히 여섯 가지 행동수정 프로그램은 다이어리에 따로 메모해두었어요. 2~3kg 찌는 건 금방인데, 1kg 빼는 건 왜 이리도 힘든 건지... 하지만 다이어트가 저에게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 위로가 되기도 하고 행동수정 프로그램을 통해 꼭 체중감량을 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편집실 정말 ‘찌는 건 금방인데, 빼는 건 힘들다.’라는 독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다이어트 생각에 추석 연휴에도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는 힘들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해요!



유나라 (충북 괴산군)

8월호 ‘기준의 기준을 읽고 몇 자 적어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옛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배웁니다. 모든 공군 장병분들이 군생활을 통해서 ‘성장’의 의미를 깨닫고 동료들과 돈독한 우애를 나눌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집실 요즘엔 정말 배움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못 배울 것이 없지요. 일과 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병사들의 학습 기회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군생활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도 좋은 기사로 공군인의 성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4 9 6